당신도 이젠 천리마로 갈아 타시오

3 -MAY 26
Copy ____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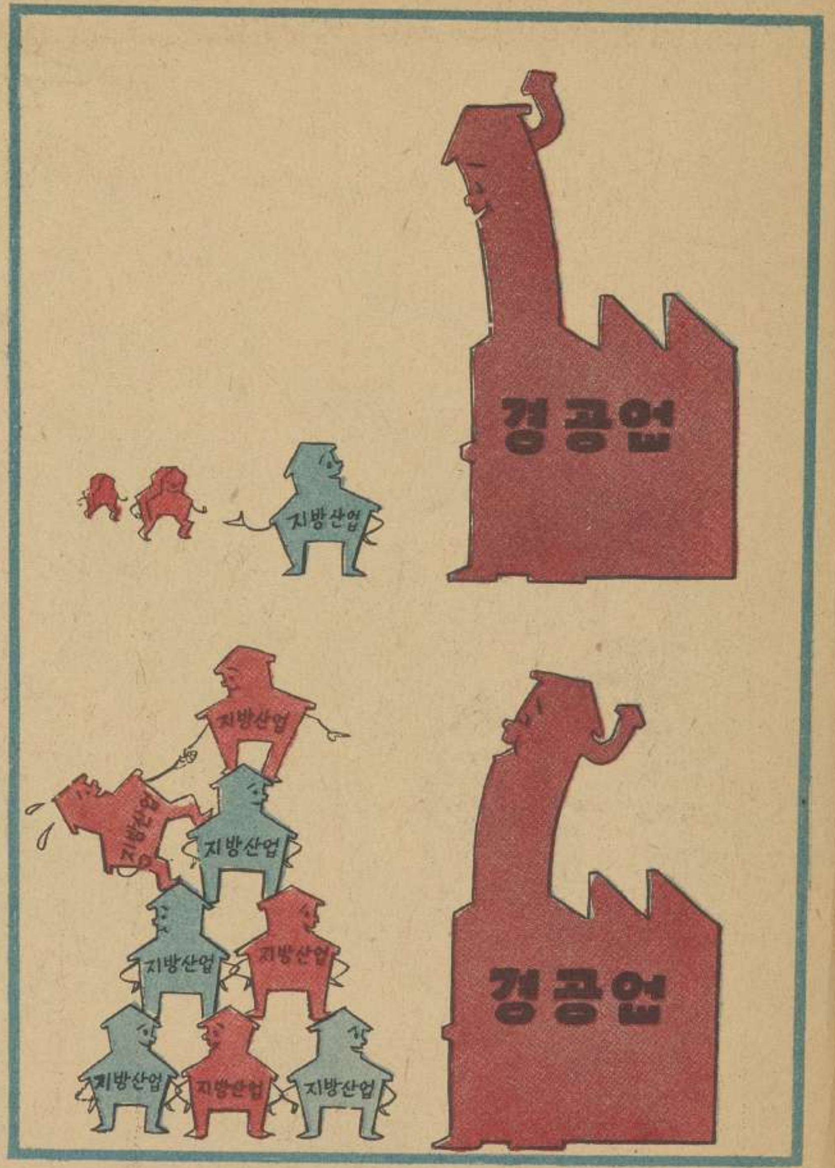
박 승히 그림

활살

10월호 1958년(95)

송 용남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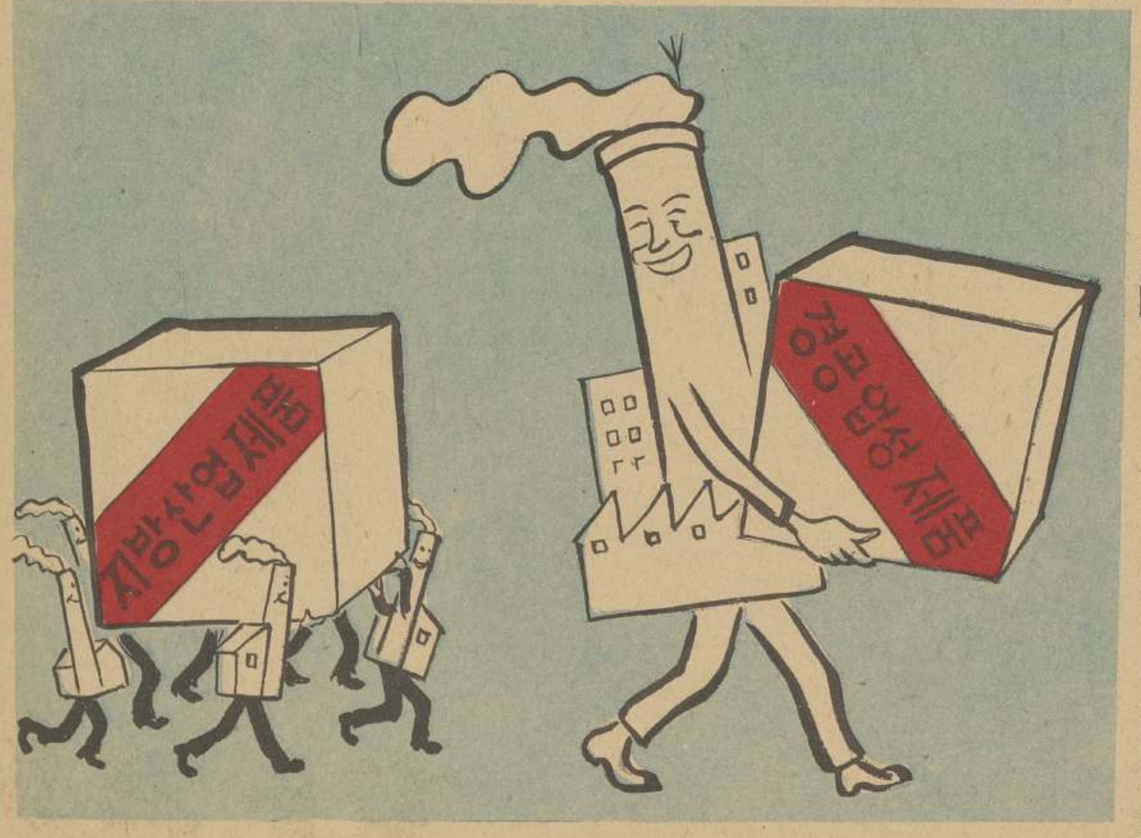
티끌 모아 태산



최 영근 그림

보조를 맞추어

송 용남 그림



작년 1월에 아오지 탄광 김 직현 로력 영웅에 의하여 창의된 고속도 굴진 방법은 굴진 분야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이 불'길은 전국에 퍼졌다. 그리하여 이 운동은 1957년도에 전례 없는 많은 채탄과 굴진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 와서 일부 탄광 부문 지도 일'군들은 벌써 지난 해 성과에 자만해 버리고 전진하려 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는 집단적 혁신 운동을 전개함으로서만이 생산을 보다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진리다. 그러나 일부 탄광 부문 지도 일'군들은 작년에 양성된 수 많은 고속도 굴진 기능공들을 사방에 파견 배치하여 이 선진 기술을 보급함으로서 전체 로동자들이 고속도 굴진 운동을 전개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대표적 례는 아오지 탄광이다.

김 직현 로력 영웅의 고속도 굴진법의 창의로 굴진에서의 새 기록을 올림으로서 아오지 탄광은 이름이 났다. 이것은 전 탄광 지배인과 기사장에게도 기쁜 일이였다. 이렇게 되자 지배인과 기사장에게는 공명심이 생기였다. 더 높은 기록을 내서 또 명성을 떨쳐 보자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브리가다들은 신입 로동자들과 4급 이하의 기능공들로 조직하고 김 직현 로력 영웅을 비롯하여 고속도 굴진 운동에서 탄광적으로 제일 우수한 사람들로 한 개 브리가다를 조직했다.

물론 이 브리가다는 성과를 올렸다. 단일 마구리에서 100 메터 이상씩 나갔다. 그러나 기능 어린 로동자들로 조직한 다른 브리가다들은 이름은 고속도 굴진 브리가다였지만 고속도 굴진법을 몰라 한달에 겨우 30 메터 밖에 나가지 못했다.

공명심에 사로 잡힌 지도 일'군들의 이런 사업 방법은 한개 브리가다에서의 새 기록은 올릴 수 있었지만 굴진에서 탄광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주었다.

김 직현 로력 영웅은 2중 심발파법을 새로 창안해 냈다. 이 새 고안은 생산을 한층 더 제고하는데 기본 고리였다. 그러나 아오지 탄광 전 지도 일'군들은 보수주의에 사로 잡혀서

<불리하오>

<재정이 많이 먹소>

등등 구실을 붙이며 이 새 창안을 아오지 탄광에서조차 보급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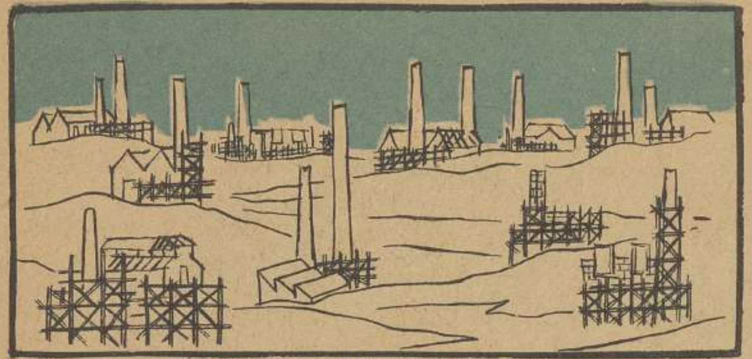
또한 소극성에 사로 잡힌 탄광 지도 일'군들과 기술 일'군들은 새 기술의 고안을 지지하고 방조해 주지 않았다. 즉 창의 고안한 새 방법의 기술 데타와 표준 조작법을 작성하여 그것을 발전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었으며 심지어 이들에게 광차와 같은 간단한 자재까지도 잘 보장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지도 일'군들이 고속도 굴진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발전시키지 않은 결과 작년에는 한달에 100 메터 이상씩 굴진하던 브리가다가 4~5 개나 되던 것이 금년에 와서는 하나로 줄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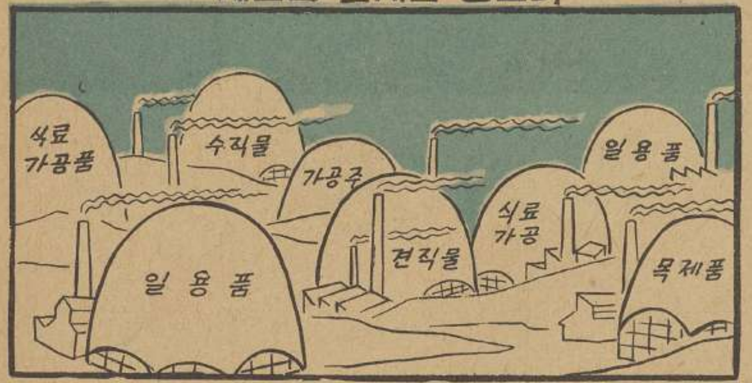
천리마로 달리는 것을 저해하는, 시대의 정신에 뒤떨어진 보수주의자와 소극 분자들은 있을 자리가 없다. 천리마는 자기의 힘찬 발굽으로 이런 자들을 힘껏 걷어 찼다.

리 윤 봉

공장은 숲처럼 일어서고



제품은 산처럼 쌓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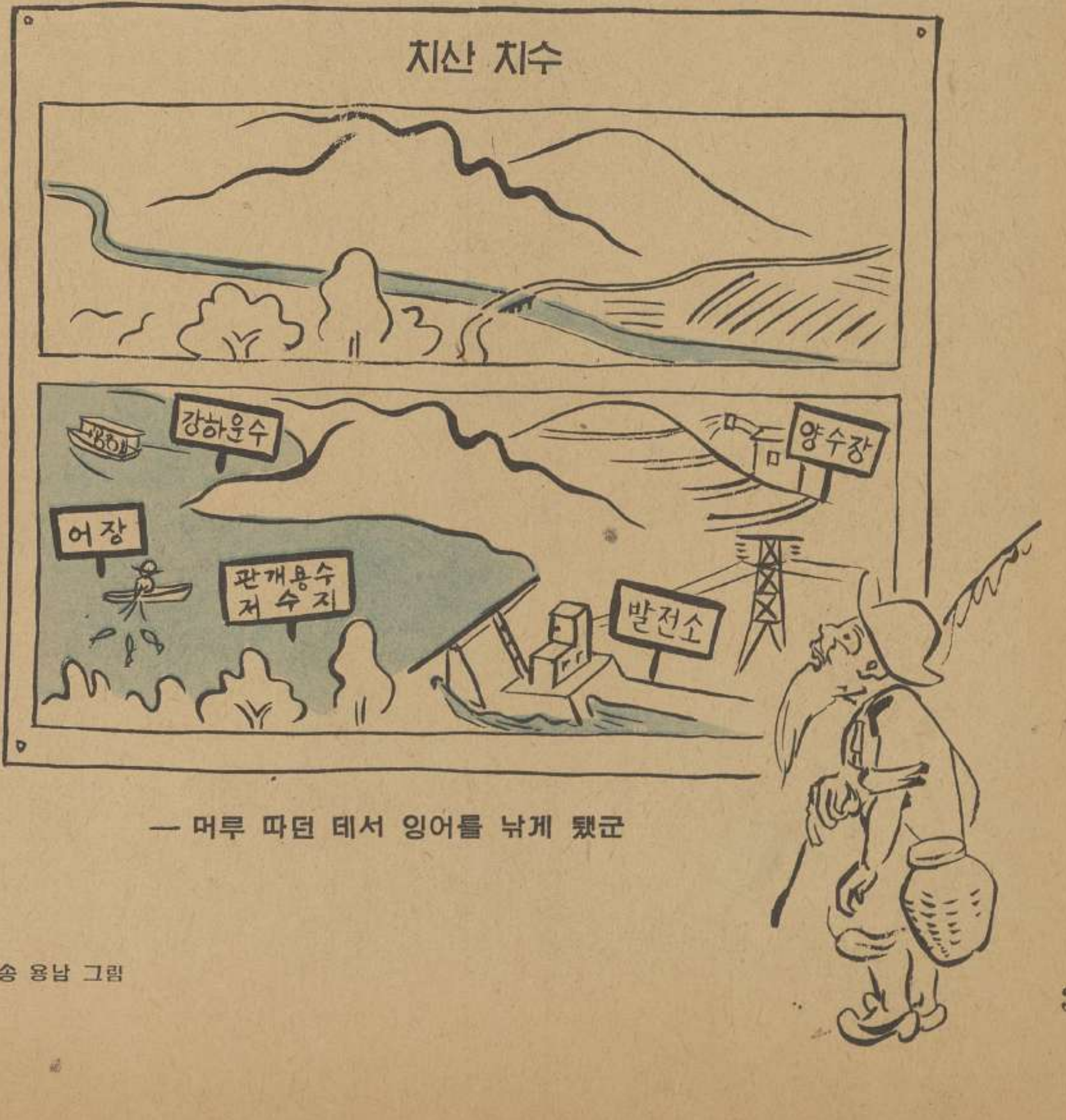


최 영근 그림

한 국토 우에 버러진 두 현상

허 능택 그림

치산 치수



— 머루 따던 데서 잉어를 낚게 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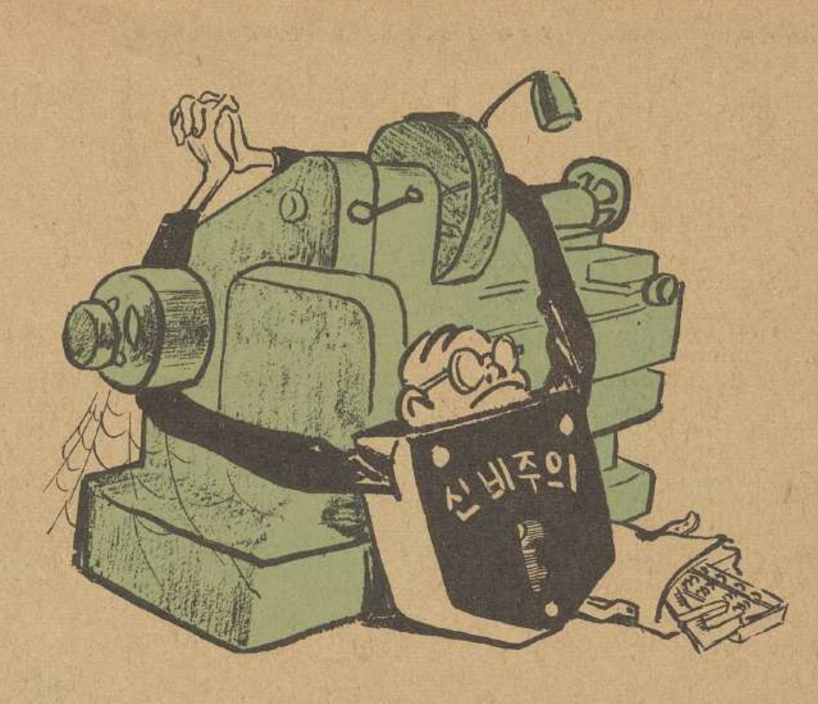
송 용남 그림

소리는 큰데 물건은 안나온다

—이만하면 소극적이란 말은 안듣겠지…

홍 종호 그림

기계 공업에서 《신비주의》가 노는 역할



홍 종호 그림

형식주의 이모저모

사공이 많아서

건설 건재 공업성 제1 트레스트가 담당한 61 중학교 작업 현장에서 공정 계획에 의해서 조립이 한창 진행 중인 어느날 현장에 나오신 부기사장 리 택룡 동지, 공정 계획도 보시지 않고 지배인의 승인도 없이 권양기를 8호 현장으로 가져 가라고 지시를 내리셨다. 로동자들은 무슨 영문인지 리해하기 곤난했으나 어쨌든 부기사장 지시니만큼 지시 대로 권양기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권양기 분해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하나의 지시가 내렸으니…그것은 공무 동력부 지도원 김 연수 동무가 부장의 지시라고 권양기를 15호 현장으로 가져 가란다. 현장 로동자들은 묘안을 궁리한 나머지 분해한 권양기를

동력은——15호 현장으로

방틀은——8호 현장으로

복통은——61중 건설장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옛말에 사공이 많은 배 산으로 올랐다더니 지도자가 많은 현장의 권양기가 세갈래로 갈라지고 보니 산으로 올란 배나 무엇이 다를가?

세 현장에서 서로 제가끔

15호 현장에서는 방틀과 복통을,

8호 현장에서는 동력과 복통을,

61호 현장에서는 동력과 방틀을,

서로 빨리 가져 오라고 아우성을 치다나니 3일 동안을 일도 제대로 못하고 뒤죽 박죽이였단다.

어느 현장에서든지 공정 계획이 있고 이 공정 계획에 의해서 기계 공정이 정해져 있는 법이다.

그런데 더욱이 기계 이동시에는 반드시 이 기계 공정에 의해서 지배인의 승인 밑에 이동된다는 것은 극히 초보적인 규정으로 되여 있다.

부기사장 동지나 부장 동지가 이 초보적인 규정을 모르실 리는 없는 일인즉 공정 계획에 의거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데로부터 혼란을 가져 오게 한다.

이것도 형식주의적 사업의 표현의 하나가 아닐가?

한날에 받은 두 가지 지시문

영재 요업 공장에서는 관리국으로부터 4월 1일에 두 가지 지시문을 받았다. 그중 하나는 3월 28일 오전에 발급한 1.4 분기

염화 쎄멘트 생산 계획 과제 (생산부)와

염화 브럭크 공장 건설 계획 (계획부)이였으며 또 하나는 같은 날 오후에 발급한 1.4분기

염화 브럭크 생산 계획 (생산부)이였다.

공장측으로서는 4월 1일 1.4 분기 계획 과제를 받고 보니 행차 후에 나발격이 된 셈인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염화 브럭크 공장 건설과 생산 계획을 한날에 받고 보니 당황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순서가 바뀌지 않고 오전에 공장 건설 계획이, 오후에는 생산 계획이 하달된 것은 공장측으로 보나 관리국측으로 보아 천만 다행한 일이였다. 그래서 우선 공장을 건설해야 생산을 할터인즉 공장 건설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그런데 4월 중순에 염화 브럭크 공장 건설을 중지하라는 건재 관리국장 지시가 하달되였다.

공장에서는 생산 과제도 함께 내려 온 터이라 급히 서둘었던 관계로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여 중지할 수도 없는 형편이여서 공사를 계속했으며 4월 말에는 일부 생산이 시작되였다.

그러자 관리국에서는 5월에 가서 염화 브럭크 2.4분기 생산 계획을 내려 보내 왔다.

이러한 사업 작풍에 대해서 구태여 이름을 붙일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꼭 한 마디 해야 할 것은 관리국으로서는 3월 28일 공장에 지시문을 하달한 다음부터는 국가 과제에 대한 책임은 공장에 있다고 생각해 온 사실에 대해서이다.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건설 건재 공업성 3 트레스트에서는 금년도 주택 건설에서 기적적인 건설 속도를 냄으로써 천리마로 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으니 웃고 지낼 수 만도 없는 일.

설계에 의하면 외랑식 주택 건설에서 륵골판을 얹어 놓게 되였었다. 그래서 현장 지도원은 그 도면에 의해서 현장을 순회하면서 지도하게 되였다. 《륵골판을 얹어 놓으시오》 이렇게…

현장 지도원이 한 개 현장을 지도하고 다른 현장으로 갔고, 현장에서 륵골판이 한창 얹어 질 무렵, 현장에 나오신 기사장 동지 《륵골판을 젖혀 놓게 되여 있소》 얹어 놓은 륵골판을 다시 젖혀 놓게 되였다.

현장 지도원이 돌아 왔을 때에는 기사장 지시에 의해서 륵골판이 거의다 젖혀졌을 때다. 현장 지도원은 깜짝 놀라서 설계서와 도면에 얹어 놓게 되여 있는데 기사장 동무가 잘못 보신게지.—

륵골판은 또 다시 얹어지기 시작했고 지도원은 또다시 다른 현장으로 지도를 나갔다. 그러는 판에 기술 지도원이 내려 오더니 또다시 젖혀 놓라고 한다.

그러다 나니 로동자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옳을지…

얹어 놓고 젖혀 놓고, 젖혀 놓고 얹어 놓고 몇 개 현장에서 얼마나 얹어 놓고 젖혀 놓고 했는지는 몰라도—

기술 과제가 변동되였을 때에는 즉시로 계통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터인데 주먹치기식으로 닥치는 대로 지도를 하다나니까 작업 현장만 혼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하는 일이 빈번하다.

행차 후의 나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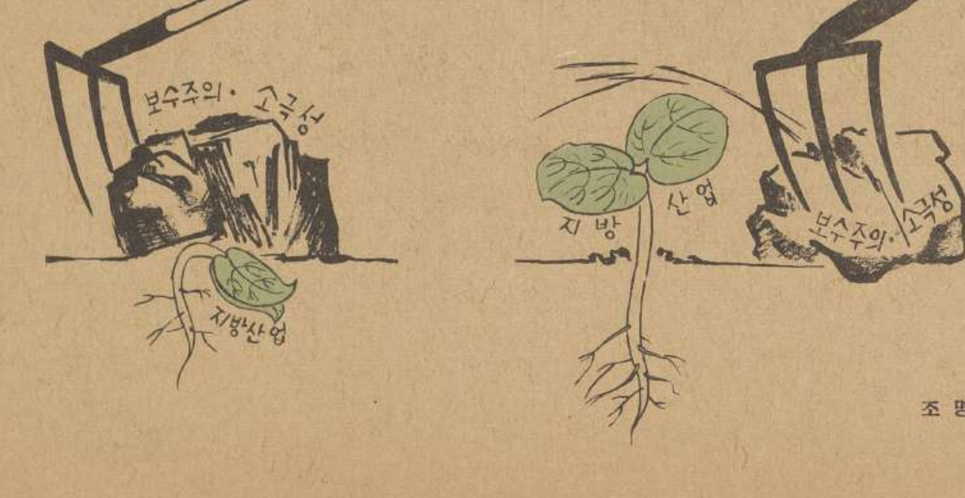
평양 건설 기계 임대소에서는 평양 건설 관리국으로부터 하달된 2.4분기 기계 수리 계획을 받았다.

7월 17일에 2.4분기 계획을 받고 보니 새삼스럽게 분기 계산을 다시 해보게 되였다. 그러나 2.4분기는 6월 말일에 틀림이 없는 일이고, 그래서 국에서 작성된 공문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국에 문의해 본즉 그 공문은 십분 정확한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성령에 의하면 임대소 규정으로서는 1 종,2 종 기계만을 수리하게 되여 있으며 그것도 로력과 자금을 보장해 주게되였건만 계획서에는 3 종 기계류의 수리까지 포함되여 있었으며 로력 자금에 대해서는 예견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고…

그런즉 관리국에서는 자체가 세워 놓고 성령을 몸소 위반하시는 셈이다. 그리고 또 언제나 이렇게 행차가 떠난 뒤에 나발을 부시는지?

관리국의 위신도 문제려니와 행차 후의 나발격이 된 계획 과제는 어떻게 하는지— 김 상 애

보수주의는 있을 자리가 없다



조 명식 그림

천리마의 저애자들

△ 평양 정밀 기계 공장에서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하고 천리마를 탄 사람의 등에 업혀 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중들은 천리마를 타자고 하는데 헐하게 가려고 천리마를 타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평양 정밀 기계 공장 지도부에는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으니 어찌하랴.

전진을 하려 하지 않는 이 공장 지도 일'군들은 새 기술의 우월성을 리해하려 하지 않았으며 무시하였다. 그들은 설계와 기술 공정표 작성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호통을 쳤다.경험과 견본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설계도 공정표도 없이 다 마모된 견본을 짐작해서 재 가지고 생산을 했다. 그것은 효과를 나타냈다. 침척 생산에서 6월에는 오작 비률을 90%나 올린 것이다.

이곳 기술 지도 일'군들은 자기 사업을 쉽게해 먹으려고 중요한 기술 관리사업을 포기해 왔다. 기사장 전 경호는 기술 공정부에 있는 각 그루빠들에 대한 지도와 책임을 면하려고 기술 계획 그루빠만 남겨 두고 공정 그루빠와 설계 그루빠는 각 직장들에 배속시켰다. 그래서 기술 설계와 공정표를 작성해야 할 설계원, 공정원, 사도공들이 직장에 내려 가서는 현장 지도를 한다고 하면서 심부름'군 노릇을 했다. 이렇게 되니 직장에 배속된 기술 부서들에 대한 지도를 직장장들이 하게 되여 기사장은 가만히 앉아 하품을 할 수 있었지만 공장의 약한 기술 집단은 분산되여 더욱 약해졌고, 기사장의 지도와 동떨어지게 되여 기술 수준도 제고할 수 없었다. 또 열처리 직장도 각 직장에 뜯어 붙였다. 그래서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지 못하게 되였고 야금 부장이 기술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여 열처리를 잘 할 수 없었다. 결과 오작품이 막 쏟아 나왔다.

기술의 우월성을 멀리해 하는 그들은 또한 로동자들이 제기한 창의 고안도 무시하고 억제하였다. 로동자들은 작업 방법을 개선할 방침, 보조 시간을 단축할 방법, 일반 기계와 다축 드리루 부문에서의 소기계화 등 생산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창의 고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보수주의에 머리가 딱 굳어진 지배인은 기술 공정부에서 심사 위원회를 열자는 회람을 찢어버리기까지 하였다.

또한 이들은 제품의 원가 저하를 위한 사업에도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당에서는 각종 저울'대 와 시계 앞뒤판 시계 진자 등을 철제로 전환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년 2백만원의 리익을 줄 귀중한 창의였다. 그러나 공장 지도 일'군들은 뭐가 부족이요 뭐가 부족이요 하고 부족 타령만 하면서 해 보려고 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도일'군들의 보수주의와 소극성은 평양 정밀 기계 공장이 천리마로 달리는 것을 방해 하였다. 이 공장이 천리마의 속도로 달리기위해서 공장 지도 일'군들은 머리에서 시급히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뽑아 버려야 한다.

△ 보조 부문이 없은 결과

박 남훈 동무가 지도하는 공장 어느 직장에서다. 직장장은 한 로동자를 만날 일이 있어 그의 기대로 찾아 갔다. 그러나 그 로동자는 기대를 세워 놓고 어디로 갔는지 없었다. 좀 있다 또 가 보았지만 그 로동자는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 가서도 역시 그 로동자는 만날 수 없었다. (이 동무가 어디로 이렇게 돌아다녀?)

그때 그 로동자가 왔다. 직장장은 꾸짖는 어조로 물었다.

《동문 기대를 세워 놓고 어디루 그렇게 돌아다니우?》

《글쎄 기대를 떠나지 말아야겠는데 재료도 타려 가야 하고 공구도 련마하러 가야 하고 기대에 칩 기름도 얻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 랑비가 하루에도 근 두 시간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줄곧 뛰여 돌아다닐라니 사실 우리도 힘이 듭니다.》

직장장은 되려 무안해졌다. 이런 사정은 이 로동자뿐이 아니였다. 그는 공장의 상반년도 설비 리용률이 31.2% 밖에 안되는 중요한 원인을 알 수 있었다. 전문 보조 부문이 없기 때문에 설비를 멈추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었다.

△ 쉬운 일만 하려는 사람들

작년 전국 기계 공업 부문 열성자 회의에서는 이런 저런 리유로 아직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일체 설비들을 탐구하여 설치할 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미설치 기대들은 물론 고장난 기계들도 모두 수리하여 설치하자—

성에서는 이 낡은 기계들을 수리할 과제를 차령관 수리 공장에 주었다. 그러나 이 공장에서는 사처에서 보내온 기계들을 수리하지 않고 새 제품을 생산하는데만 몰두했다.

《낡은 기계를 수리할려면 로력과 수리비가 많이 먹는다》고. 그럴듯 하다. 그러나 이것은 그럴듯 한 구실이다. 사실은 고장난 부속들의 도면을 하나하나 새로 작성해 만드노라고 몇 배 시끄러운 데 금액상 생산고는 올리지 못한다고 해서 수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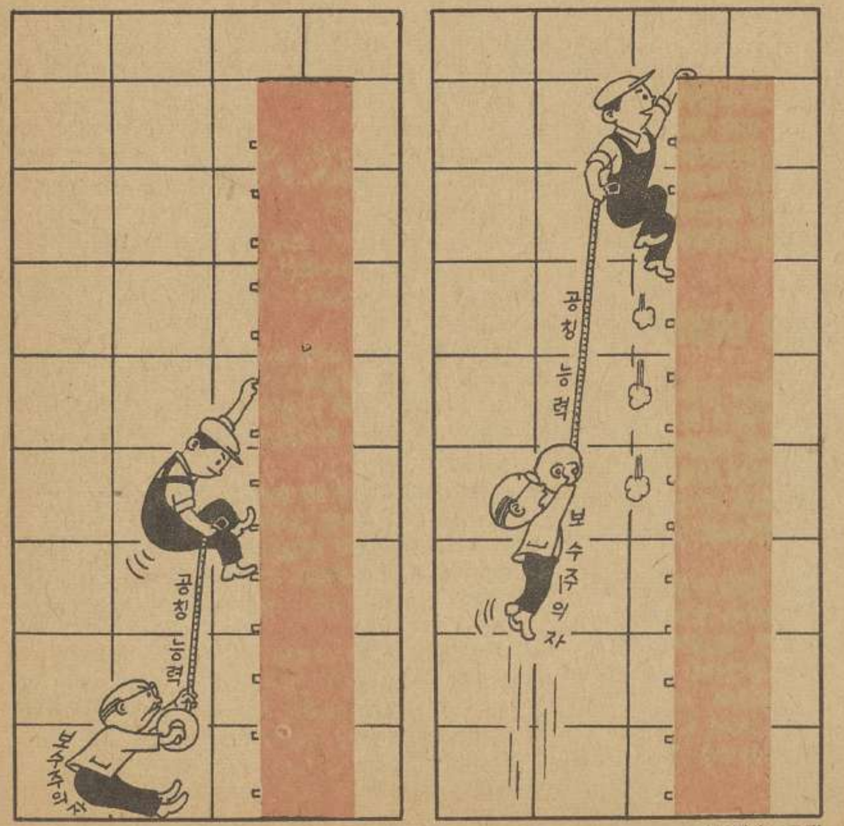
그래서 그들은 수리할 압축기, 뽐뿌류, 권양기들과 선반, 볼반, 후라이스 등 공작 기계들이 백 수십 여대나 되였고 그 중에는 수리하면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공작 기계들도 허다히 있었지만 시끄럽다고 수리하지 않고는 새 기계를 달라고 40 여 대나 청구했다. 그래서 성에서는 이렇게 대답했다.

《거기에 있는 공작 기계들은 수리해 쓰시오. 그 기계들은 다른 데도 주지 않겠소.》 성에서는 이 공장 지도 일'군들의 이런 옳지 않은 견해에 대하여 여러 번 비판했으나 고집을 버리지 않고 계속 새 기계만 만들고 있으며 심지어 전동기는 수리할 것이 40 여 대나 되는 데도 수리는 하지 않고 래년에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낡은 기계를 수리해 쓰는 것— 이것은 원가면에서나 로력 절약 면에서 국가적으로 큰 리익을 준다. 그러나 차령관 수리 공장 지도 일'군들은 국가적인 눈이 아니라 자기 공장의 금액상 달성만을 위해서,쉽게 하기 위해서 기관 본의주의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 공장이 천리마로 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도 일'군들의 기관 본의주의적이며 안일한 사상을 극복해야 한다.

리 운 봉

자가 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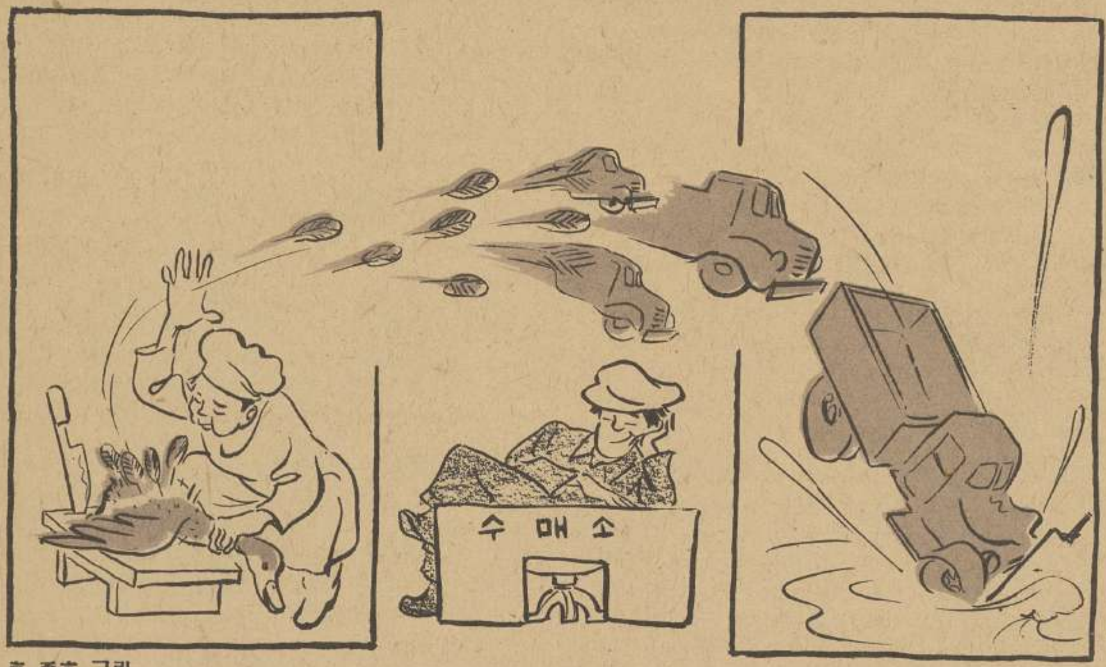
원 광수 그림

보수주의 각 형태

홍 종호 그림

오리털 1 톤을 수출하면 자동차 1 대를 사고도 남는데 식당 일'군들과 수매 일'군들의 무책임성으로 인하여 귀중한 외화가 헛되히 버려지고 있다.

귀중한 보배를 버린다



홍 종호 그림

보수주의

이만하면 되지

우리는 금년도 조립식 건설에서 기적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그런 데로부터 일부 일'군들은 자만 자족하여 《이만하면 되지》 자랑만 일삼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금년 봄에 기계 공업성 트레스트 구성 건설장에서 기능공들은 18 톤급 기중기 제작을 결의하고 나섰다.

이 기중기만 해결한다면 공장 건설 속도를 몇 배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능공들은 더욱 서두르게 되였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기술적 지도를 주셔야 할 기사장 동지.

《잘 되지도 않을 것을…》 《크게 성과도 못낼 것을》 이렇게 생각이 되셔서인지 적극적으로 기술 지도를 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로동자들의 정열적인 노력의 결과 5월에 40 톤급 목조 기중기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 40 톤급 기중기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 생산된 것이다. 현장에서는 즉시 건설에 도입하여 공장 건설 속도를 기적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적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이곳 지도 일'군들은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고 로동자들의 노력을 평가도 찬양도 하지 않고 지내버렸다. 사회주의를 향하여 천리마로 달리는 오늘 현실에서 이렇듯 소극적으로 보수주의에 사로 잡힌 일부 일'군들은 언제까지나 그 뒤꼬리만을 따르고 있으려는지…

녀성들의 로동 조건 보장

또 무슨 구실을

종업원의 대부분이 녀성 로동자인 평양 일용품 공장에서는 이번에 또 많은 로력을 증원하게 되였다.

시 로동부에서는 이 공장 성질로 보아 증원되는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녀성 동무들을 소개해 보낸다.

그래서 날마다 녀성 동무들이 이 공장을 찾아 온다.

그럴 때면 이 공장 지도부에서는

―또 녀성 동무로구만, 참 곤난한데… 어째서 시 로동부에서는 우리 공장엔 녀성 동무만 보내 주는지 알 수가 없단 말야―

소개해 온 동무를 거절할 아무런 리유도 없어 받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공장에는 탁아소가 없수다. 곤난하지 않소? 지금 있는 동무들도 탁아소가 없어서 곤난을 느끼고 있는 형편인데…》

다짐이나 하듯이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것이였다. 그리고 또 잊지 않고 시 로동부에다 련락했다.

《우리 공장에는 탁아소가 없어 녀성 동무를 받기는 곤난하니 이제부터는 녀성 동무는 그만 보내주시오》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다.

―탁아소를 세우라고 하지만 탁아소까지 세워 놔 보지. 그렇지 않아도 아주머니들만 보내 오는 판인데―탁아소 없기를 천만 다행이지…

이처럼 이 공장 지도부에서는 녀성 로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차라리 탁아소가 없는 편이 좋은 조건으로 된다고 생각하였다.

종업원들이 탁아소를 설치할 데 대한 것을 제의할 때면 의례히

《맡은 과제가 바쁜데 어느 하가에 탁아소, 유치원을 짓고 있단 말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은 틈이 없는 것보다는 녀성 로력에 대한 그릇된 견해로부터 그·조건을 보장해 줄 데 대한 성의가 없는데 그 원인이 있지 않을가?

내각 결정 84호가 나왔다. 이 공장에도 많은 남성 로력이 녀성 로력으로 교체될 것이며 증원되는 인원도 녀성 로력으로 될 것인즉 천리마로 달리는 현실 속에서 이 공장 지도부에서는 또 어떤 구실을 찾으시려는지―

조그마한 수고를 아껴서

시 로동 부장과 어린애를 업은 녀성 동무가 담화를 하고 있었다. 그 녀성 동무는 평양 제 9 중학교 교원인데 2 명의 어린애를 데리고 교수를 보장하기 곤난하니 탁아소 있는 직장으로 옮겨 달라는 것이였다.

제 9 중학교에서는 탁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되여서일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일까?

그 학교에는 47 명의 녀교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의 대부분이 어린애 어머니들이다. 부근에 있는 탁아소를 리용하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불편한 일이다.

국가에서 탁아소의 일체 비용을 보장하는 조건인데, 이 학교 지도 일'군들이 녀성 교원들의 사업 조건을 보장할 데 대한 관심만 있으시다면, 같은 사정에 있는 그 부근의 제 31중, 제 33중과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 일.

내각 결정 84호에 의하면 앞으로는 교육 부문에서 더 많은 녀성들이 일하게 될 것인바 녀성 교원들의 사업 조건을 보장 해 줄 데 대한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 상 애

기능공 문제

김 명제 지배인은 공장의 한 직장장을 불렀다.

《왜 기대를 3교대로 돌리지 못하우?》

《3교대로 할 기능공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모자라? 그전에 있던 기능공이.》

《이번에 많은 기능공들이 야간 기술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모두 기술 부문에 배치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간부부에 제기해서 기능공을 받아야지.》

지배인은 몹시 불만하여 꾸짖었다.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능공을 양성하지 못했답니다.》

《양성하지 못했다?》

지배인은 눈이 둥굴해지더니 뒤통수를 빽빽 긁었다. 기능공들을 기수로 만드는 데는 관심을 돌렸는데 후에 그 자리를 채울 것은 그만 생각을 못한 것이다.

안타까이 뒤통수를 긁었지만 기능공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기능공은 미리부터 양성해야 하는 것이다.

황해도 봉산군에서 있은 일

안 성 수

(두 사람 마을 길을 걸으면서)

갑―(위생 검열 위원장)―여기 있던 변소도 저기 있던 변소도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모주리 허물게 했습니다.

을―(중앙 지도 그루빠 성원)―하나도 남기지 않았소?

갑―예 70개 있던 것을 단시일에 100%로 철저하게 허물었습니다.

을―힘이 들었겠소.

갑―예 힘들었구 말구요. 로력도 많이 들었지만 아직 위생 관념이 희박한 리 내 전체 인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디쳤지요.

을―좋소, 그럼 짓기는 얼마나 지었소 (걷는다)

갑―120%로 초과 완수하여 지었습니다.

을―(놀란 듯이) 어데에? 지은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은데…

갑―마을 복판 정자 나무 밑에 있는 것이 그겁니다.

을―그 큰 기와집 말이요? 나는 그게 민주 선전실인 줄 알았지, 그래 나머지는 또 어데 있소?

갑―그것 뿐입니다. 거기에다 변소 열 두간을 만들었습니다.

을―그래서 120%요? 참 놀랍소, 마을 끝에서 거기까지 사람들이 밤에 그것을 리용 하오?

갑―그래서 하는 말이 아닙니까? 곤난을 극복하고 공동 변소를 리용하라고 하는데도 말을 안듣고 아무데나 리용한답니다. 정말 농민들의 보수성이라고야…

을―안됐는데 그것은 나쁘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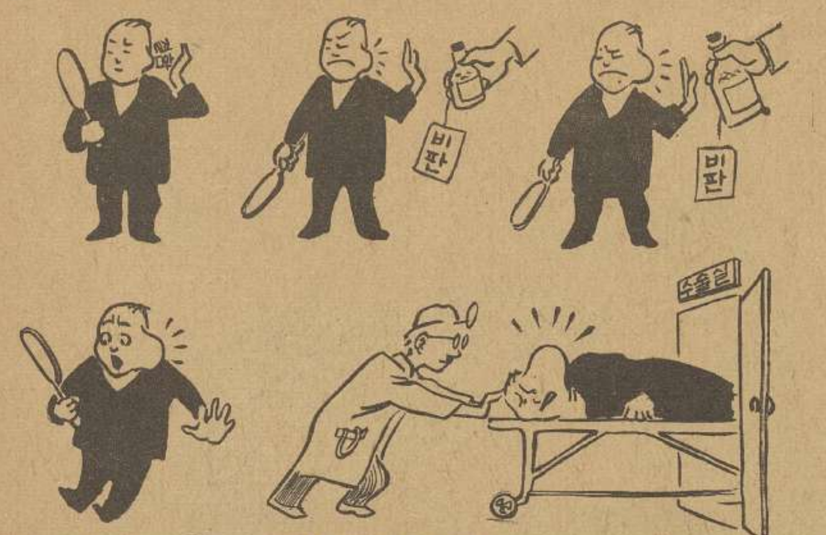
갑―(신이나서) 나쁘구 말구요 낡은 사상 잔재가 꽉 들어 찬 그들께 요새는 해설과 설복으로는 안 들기 때문에 처벌을 주는 방법을 적용하…

을―(소리친다) 처벌을 당신에게 주어야 겠소.

갑―(놀라면서) 예 제가요?

길렀다

홍 종호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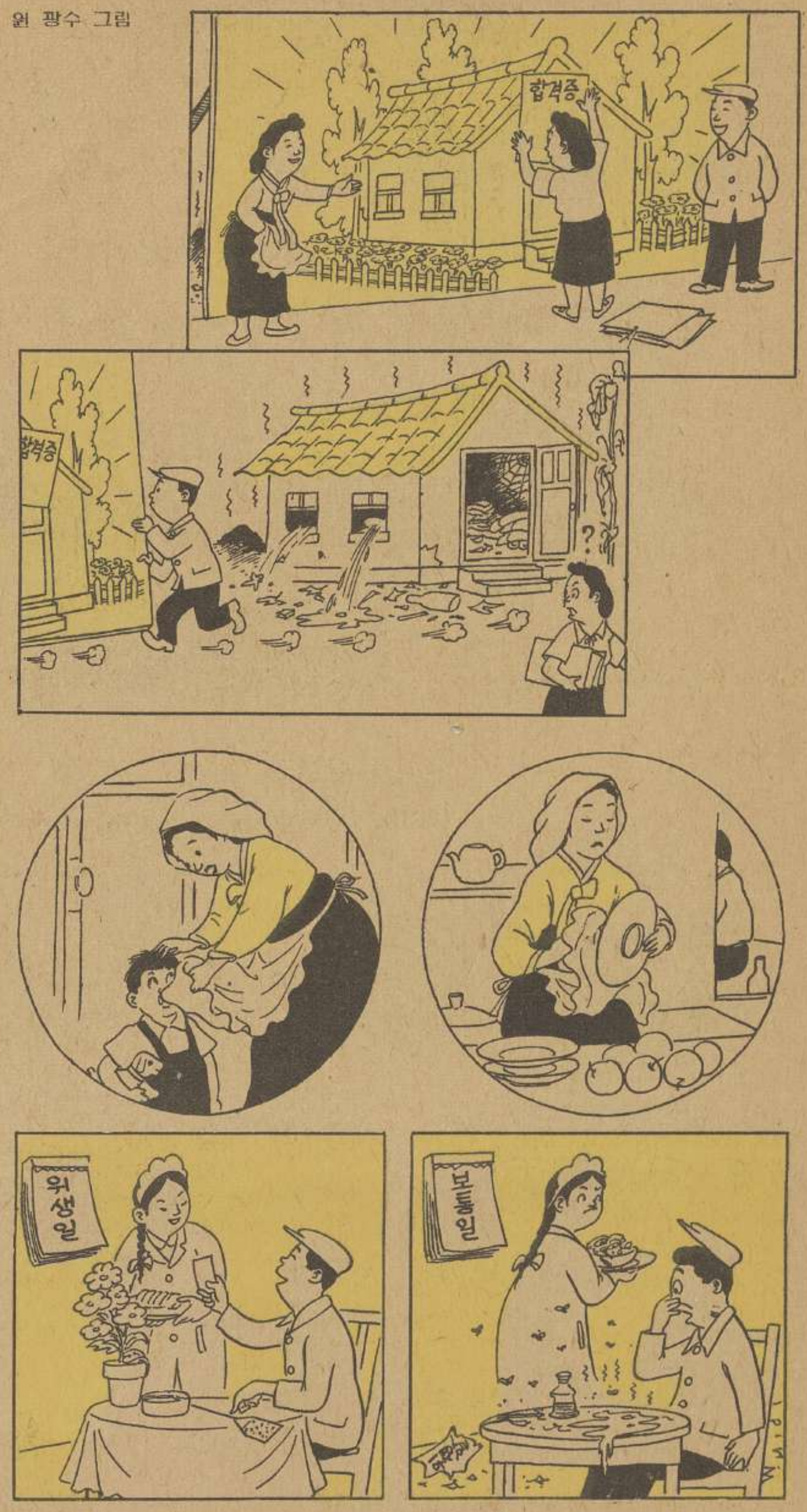


리기주의자의 표정

허 능택 그림

아직도 이런 경향이 있다

원 광수 그림



리기주의 잔재들

자기 딴에는

여기가 바로 함북 유성군 영수리 단고 농업 협동 조합이다. 79 호나 되는 이 조합에서는 토지를 퍼그나 가지고 있다. 그런데 조합을 한바퀴 돌아보면 인차 눈에 띄이지만, 어떤 밭은 정성스레 가꾸어져 있는가 하면, 어떤 밭은 풀이 무성한 채로 전혀 손이 가지 않은 밭도 있다. 그래서 어떤 작업반은 일을 잘하고 어떤 작업반은 일을 게을리하는 줄만 알았더니, 사실을 알고 보니 개인 터밭과 조합 밭이였다.

이 조합에서는 다른 많은 조합들과 달리 매호마다 500 평 이상의 개인 터밭을 가지고 있다. 병'집은 여기서부터 울어나오는 것인데 조합의 공동 로력보다는 우선 내 터밭을, 좋은 비료는 우선 내밭에, 중경 제초 작업도 우선 내터밭부터―

그러다 보니 모성들은 차라리 자기 집 터밭이나 가꾸는 것이 상책 같아서 모성 로력을 모주리 부대 로력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그래서 공동 작업장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머니들이 자기 밭에서는 열심히 가꾸는 까닭에 조합에는 두 가지 밭이 생길 수 밖에…

어떤 작업 반장님께서는 1,500평까지 가지고 있다나니 다른 조합원에 대해서 말할 조건도 못되는 일, 이처럼 이 조합 지도부에서는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교양할 대신에 개인주의, 리기주의 울안에서 살게끔 조건을 보장해 주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웬 일인지 수확은 다른 조합보다 훨씬 적으니 결국은 제꾀에 제가 넘어간 격이 아닐가?

또한 온성군 풍리 농업 협동 조합 최 인철 조합원은 자기 터밭 1,200 평과 개인 역축까지 가지고 있으니 명색이 조합원일 뿐, 날마다 자기 리'속만 차리고 조합 일은 대강대강 해 버리는 분네들도 계시다.

이처럼 자기 리'속만 차리느라고 했지만 수확을 해서 분배를 해보니 다른 조합보다 훨씬 적게 차례졌다. 그런즉 내 실속만 차리는 낡은 사상은 오늘에 와서는 뒤떨어진 사상이 아닐가?

한심한 장들

경원군 용문리에 이런 장들이 계시다. 리에 사시는 많은 장님들 가운데 리 위원장님, 교장선생님, 선전실장님, 상점 점장님, 선생님 등 여러 장들…

리 위원장 700 평을 위시해서 이 장님들은 600 평, 500 평씩 모두 개인 터밭을 가지고 계시다.

원래 리 위원장님은 솜씨가 있어서 능난해―혼자 터밭을 가지는 것보다는 여러 장님들이 골고루 가지는게 인심도 쓰는 것 같구 불상도 괜치 않거든,

그래서 모 모 모 꼽히는 장들에게 이처럼 개인 터밭을 붙일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 주었다.

이렇게 개인 터밭을 가지게 해 놓고는 위원장님은 수완도 좋으셔…

위원장님이야 다른 사업이 바쁘신데 언제 농사를 지을 사이가 있어야지. 그런즉 바쁜 모퉁이에 가서는 조합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시키는 것도 위원장으로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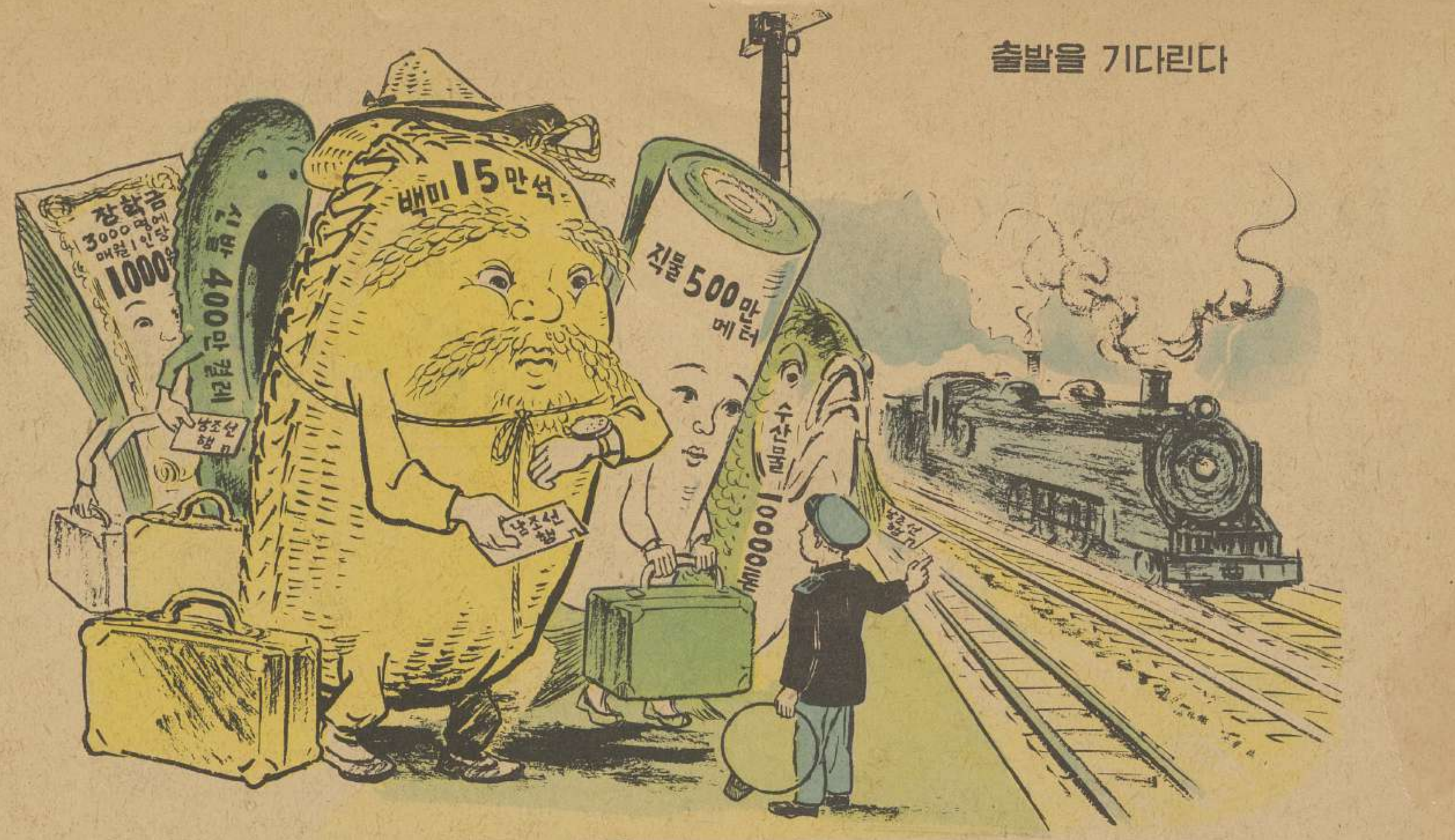
그래서 부근에 있는 대흥, 금자, 서구 등 조합에서는 가끔 조합원들이 동원해야 했고…

현물세를 낼 때에는 어물적하여 조합 현물세에 포함시키는 것도 위원장님은 잊지 않았다.

이처럼 멋지게 농사를 지은 수확은 고스란히 위원장님 수중으로…

그러니 위원장님, 6,000 여평을 가지고 계시던 옛적에 하던 그 버릇과 무엇이 다를가? 김 상 애

출발을 기다린다



—길이 급합니다. 언제나 떠나오
—미제와 리 승만이가 방해하기 때문에 발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리 영춘 그림

간판의 말로

박 노을

방직 공장 산업 회사 간판은 많다.
그래도 일'자리는 오늘도 없네
락엽송 참나무 큼직한 간판
비 새는 판자'집에 갖다 쓸거나?

일'자리를 쫓기여 난 로동자들이 울분이 치솟아 이런 노래를 부르며 서울 거리를 헤매 돈다. 큼직한 간판을 보면 일'자리 하나쯤은 있음상 싶건만 새로 일'자리를 얻기는 커녕 오늘도 또 수 십명이 《구비》(해고)를 먹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퉤! 망할놈의 세상》 공장 문을 쫓겨 나오며 돌아다 보니 으리으리한 간판도 원쑤만 같다. 집어 내동댕이 치고도 싶다. 노래에는 비 새는 판자'집으로나 가져 갔으면 하는 말도 있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
한 로동자는 울화가 치밀어 숫덩이를 집어 들었다.

《네놈이 무슨 산업 회사냐? 실업 회사지》 그는 《産》자에 검덩이 칠을 하고 그 옆에 큼직하게 《失》자를 써 놓았다. 그리고는 통쾌한듯 호기 있게 껄껄 웃어 봤다. 옆으로 오던 다른 로동자들도 《옳네 옳아, 실업 회사! 이제야 간판도 제대로군》 그들도 한바탕 따라 웃었다.

그 다음부터 이것은 류행으로 되였다. 해고를 당한 로동자들은 간판을 그대로 두지는 않았다. 《에라 네놈두 실업 회사로구나》 큼직한 붓을 들고 대서 특필하는 사람도 생겨 났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사장씨들은 고민이 생겨 났다. 무슨 공업 주식회사 무슨 광업, 무슨 산업, 무슨 방직업…회사 우에 무엇무엇하며 감투를 씌운 것이 한스럽기도 했다.

민 사장씨는 고민이 더했다.

《하필 우리 회사는 처음부터 실업 회사니 그놈들 말투로 한다면 정말 실업 회사로구나, 이제라도 이름을 고친담?》 그는 생각에 골몰했다.

파연 민 사장씨는 민간 생활에 실지로 필요한 상품들을 만들어 낸답시고 메리야쓰, 양말, 장갑 등을 짜는 방직 공장을 내면서 《민흥 실업 주식 회사》라고 간판을 붙였던 것이다.

전화가 걸려 온다. 사장씨 전화를 든다.

《민흥 실업 주식회삽니까?》

《네 아니 아니 민흥 메리야쓰 주식회삽니다.》

공장마다 회사마다 실업 회사라고 놀림을 받는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 말초 신경이 극도로 움직이기 시작한 민 사장씨께옵서는 자기 회사 이름을 《실업 회사》라고 답변하기에는 맘에 걸렸던 것이다.

하루는 중역 회의를 열었다.

《어쩌면 좋겠소? 회사 이름을 변경합시다》

《그러나 지금까지에 많은 단골 거래가 끊어질 념려두 있아오니…》 반대지 찬성인지 모를 의견들이 오고 가는데 또 전화가 걸려 왔다.

《네? 은행이요? 네, 네, 갑지요》

수화기를 놓는 사장씨의 얼굴엔 어덴가 수심이 떠올랐다. 5백만환 대부금의 독촉임에 틀림 없다는 것을 그가 왜 모를 것인가?

《그래도 한 달 쯤이야 또 연기를 받겠지…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없을라고》 그는 자못 자위를 하며 문을 나서려는데 전보가 또 날려 왔다.

《응? 이건 또 뭐야? 뭐 뭐라고? 주문을 취소한다?》

《운영 합리화》가 아니라 별의별 합리화를 다 하더라도 찌부러지고야 말 민씨의 운명을 한국 은행이 왜 모를 것이랴? 부산 부두에는 미국제 메리야쓰가 산'더미로 들어 쌓이였음에—.

그러니 독촉 여부가 아니였다.

은행에서 돌아 온 사장씨는 중역 회의를 다시 열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간판 이름이 변경 여부가 아니였으니

《어쩌겠소? 차압을 당하고 나면 우리두 회사 간판을 떼는 수 밖에요!》

기막힌 사정

—유서엔 아주버니를 찾아가서 의지하라고 했어요.
—이사람을 찾아오면 일'자리나 하나 구해달랠까 했더니

조 명식 그림

직업 선수들

어깨패 깡패들이 서울 거리를 활보하다가는 가끔 세력 다툼으로 어깨들 끼리 싸움판을 벌려 놓군 해서 구경'군들이 길이 메게 둘러서서 싸움 구경을 하는 일이 거의나 매일 같이 있다. 어깨패와 깡패는 직업이 폭력 행사이고 보니 싸움을 하지 않고는 말하자면 밥벌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직업적인 싸움'군들에게는 매개는 싸움을 할 장소와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싸움 구경을 제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들의 싸움을 언제 어디서 볼 수 있으리라고 미리 타산할 수는 없다.

정해진 장소로 정해진 시간에 가면 반드시 구경할 수 있는 싸움에는 우선 권투 시합이 있다.

남조선에서는 권투 시합이 스포츠라기보다는 돈 받고 싸움 구경시키는 하나의 흥행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권투는 역시 스포츠인데는 틀림 없어서 어깨패 싸움과는 다르다. 우선 경기 규칙이 있어서 규칙대로 시작되며 진행되며 끝난다. 말하자면 점잖게 시작되여 점잖게 끝난다. 그러기 때문에 싸움 구경을 좋아하는 서울의 한가한 층들은 너무나 점잖아서 어깨패들의 싸움판 같이는 실감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어깨패들의 싸움 같이 란장판이여서 실감이 있으며 그리고도 미리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볼 수 있는 싸움은 없겠는가? 있다. 그것은 곧 괴뢰 〈국회〉다.

괴뢰 〈국회〉에서는 매일 같이 란장판이 벌어진다. 욕지거리, 주먹질은 보통이요, 명패가 날아나고 의자로 머리를 까고 머리가 깨지고 멱살을 잡고 골통이 터지고 애들의 진치기 놀이 모양으로 의장석을 폭력으로 점령하고 경찰이 의사당 안까지 출동하는 일들이 또한 하루 걸이로 반복되는 행사다. 더 멋지게는 어떤 〈의원〉은 의장석을 점령하고서는 자기 배에다 칼을 가져다 대고서 만일에 자기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면 배를 가르겠다고 신파 한막을 연출하기도 한다.

그러기 때문에 본시 〈국회〉 방청권은 무료로 발급되는 것이지만 싸움 구경 좋아하는 한가한 축들 사이에선 〈국회〉 방청권이 그 비싼 권투 시합 입장료보다 약 이십배의 가격으로 흥정되고 있는 것도 리유 없는 일이 아니다.

〈국회〉 내에서의 란장판 개 싸움 중에서도 란장판이였던 례로서는 8월 19일 오후 《국회 운영 위원회》에서의 한막 활극일 것이다. 이날 개싸움의 구실인즉은 소위 《국회 내 폭력 행위 금지에 관한 결의안》을 토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결의안》을 토의에 붙인 결과 마이크가 부서지고 의자 넷이 부서지고 세명이 중경상을 입는 전과를 올렸을 뿐, 이 결의안은 결국 표결에도 붙이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고 말았다.

남조선의 이모 저모

갈 데 없는 임명장

최근 리 승만 도당은 학교도 없는데 교장과 교감만 수다히 임명하여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원인과 결과

학교 수리비는 거둬 갔건만

남조선에서는 학교들을 보수하지 않아서 계속 쓰러지고 있으며 어린 학생들은 공포속에 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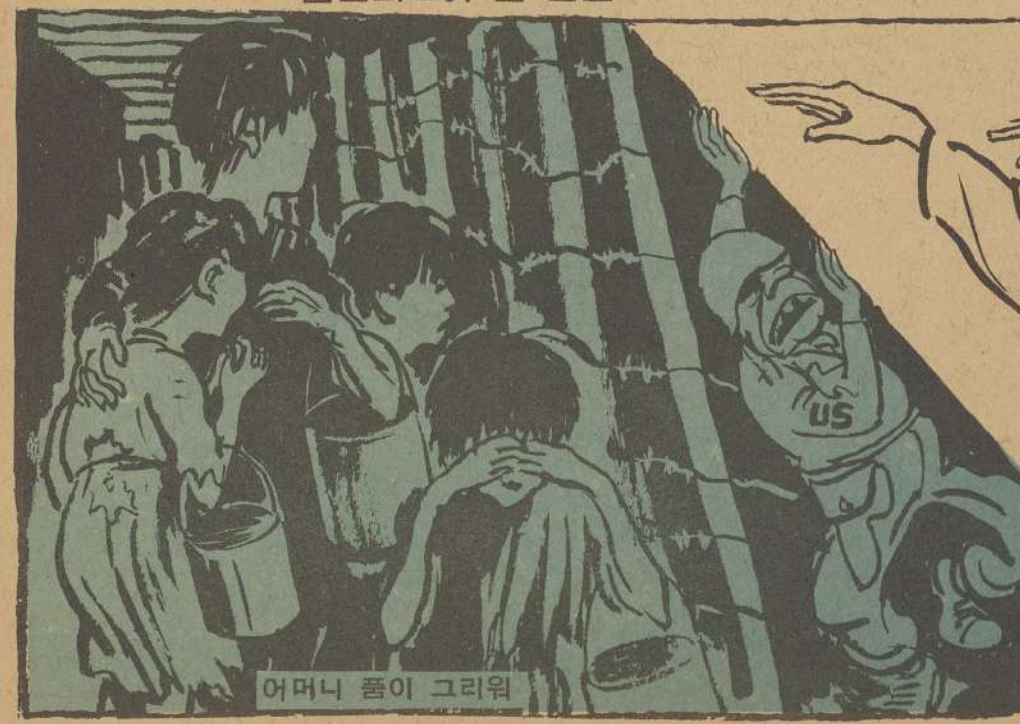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도라는 남조선의 목사 장로들은 깡패로 등장하여 리권의 쟁탈을 위한 대 란투극을 연출하고 있다.

제대와 소집

최 영근 그림

실현되고야 말 념원



어머니 품이 그리워

친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애타게 부른다

박 승히 그림

무엇으론들 지탱할 수 있으랴

박 승히 그림

남조선의 각급 학교들에서는 갖은 명목으로 공납금을 받아 내는데 고등 학교면 벌써 한 학기에 매 명에게서 6만 여 환씩이나 떼 낸다. 그러나 이 공납금보다도 수 십 가지나 되는 잡부금이 그보다도 더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로동자 사무원의 임금은 5~6 개월씩 체불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여 있으면서도 학교 공납금, 학교 잡부금만은 체납이 용허되지 않는다. 공납금 잡부금을 물지 못하면 출석해도 결석으로 되고, 시험을 칠 수가 없으며 많은 경우에 등교할 수 조차 없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혈액 은행에 가서 피를 팔아야 하며 그러다 못해서 공납금을 물지 못해 쫓겨 나기도 하고 비관 끝에 자살하는 학생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떼 내면서도 아직 부족해서 최근 <문교부>에서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로부터 공납금을 받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아직은 학교에 다니지 않으나 앞으로 학교에 다니게 될 <학생>으로부터도 공납금을 받아 낼 것을 결정하였다. 그들의 주장인즉은 학교의 교실, 교구, 강당 등은 지금 다니는 학생들만 쓸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닐 학생들도 쓸 것이므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마땅히 앞으로 학교에 다니게 될 학생들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기상천외의 명목을 다 붙여서 학생 또는 미래의 학생들로부터 돈을 짜내서는 무엇에 쓰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히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 그 한 례만 들기로 하자.

8월 9일 전주에서는 호화스러운 자동차 행렬을 볼 수 있었다. 이 자동차 행렬 속에는 전라북도 《문교 사회 국장》과 그 국의 각 《과장》들과 전라북도 《의회》내의 《문교 사회 위원회 위원들》인 《도 의회 의원》들이 타고 있었고 그들 사이 사이에는 시내 각 료정에서 선발된 기생들이 10 여 명 끼여 앉아 있었다.

이 일행은 피서를 겸한 산놀이를 떠나는 것이였다. 그들이 준비해 가지고 간 물품은 남조선 통신들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닭이 100 여 마리, 맥주가 20 여 타, 일본술이 두 말 등등이였다.

8월 9일은 토요일이였다. 이처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각기 기생들을 무릎에 앉히고 산놀이를 떠난 이들은 일요일까지 묵고 올 작정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호화로운 산놀이를 하게 되였는가? 이에 대해서 남조선 통신들은 《9월에 열릴 정기 도 의회에서는 출납 감사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앞서》《문교 사회 의원》어른들의 입을 틀어 막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이 하루의 산놀이에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피와 땀과 한숨과 눈물로 짜 낸 돈이 탕진된 것인가?! 입을 틀어 막기 위한 돈만도 이러하다. 그러고 보면 20 여 타의 맥주와 100 여 마리의 닭과 두 말의 일본술과 열 명의 기생 등으로 틀어 막을 수 있는 입이니 그놈의 입이 대관절 큰 것만은 확실하다.

홍 종호 그림

오 정 삼

남조선 전 지역을 동시적으로 폭발하다 싶이 발생한 일본 뇌염이 서울에 급격히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작금 량년에 걸쳐 을축년을 릉가할 대홍수가 삼남 지방을 휩쓸어 금년만 하여도 지난 7월 첫 장마에 작으만치 180 여 명의 인명과 1만 7백 9 동의 건물과 11만 6천 5백 36 여 정보의 논밭에 피해를 입었다.

구급을 시급히 요하는 수재민들에 대하여 리 승만 괴뢰 당국은 이번에도 입'버릇처럼 그 《동포애》를 짖어 댐으로서 자기들의 검은 배'속을 숨기려 들었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에게 쫓기고 시달리고 쪼들릴대로 쪼들려 이를테면 제코가 석자나 빠진 남조선 인민들에게 리 승만 역도들은 13년 간 자기들의 학정이 빚어 낸 후과를 인민들에게 들씌움으로써 폭발 직전에 놓여 있는 반미 반 리 승만 감정을 무마하려고 했겠다.

이야기는 본론으로 돌아가 남조선 전 지역은 장마 뒤, 돌림'병이 폭발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항시 병마의 질곡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은 설상가상으로 장마 뒤, 돌림'병에 홍수보다 더 무서운 고통을 겪고 있다.

그 무서운 일본 뇌염을 비롯하여 코레라, 장질부사, 지후테리, 적리, 백일해가 문자 그대로 창궐하고 있다.

그런데 온갖 질병이 급격히 창궐하자 괴뢰 《보건 사회부 장관》 손 창환이 먼저 기뻐 날뛰였다.

× ×

첫 장마를 한물 치르고 난 서울 《덕수 병원》은 일본 뇌염, 지후테리, 백일해 환자로 련일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보건 사회부 장관》 겸 《대한 적십자사 총재》이며 동시에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덕수 병원》 원장인 손 창환은 만면에 기쁨이 넘쳐 흐뭇한 기분에 잠기고 있다. 《덕수 병원》은 다른 개인 병원보다 치료비와 약 값이 몇배 비싼 것으로 이름이 높다. 그것은 다른 병원에는 전혀 없는 기괴한 치료 기구와 페니시링, 씬도미찡 레보미찡 비오미찡 등 고'가 약들이 빈틈 없이 구비되여 있다는 것과 소위 《미국식》 치료법을 쓴다는 데서 한 몫 보고 들었다.

손 창환은 병원의 대번창에 기뻐 날뛰면서 괴뢰 《국회》가 개최되고 있는 요즈음 《보건 사회부》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괴뢰 《국회》 개회 중에는 각 《장관》들도 저마다 출근을 꺼려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소위 제 4대 《국회》에서 힐난하고 있는 《정부 보유미》 수십만 석과 《군수》 물자를 비롯한 각종 물자 횡취 도난 사건을 비롯해서 《가짜 비누 군납》과 《의약품 부정 처리》 사건들을 물쳐 내 가지고 괴뢰 《국회》에서 짖고 까불고 하는 것이 아니꼽기도 하려니와 뒤가 캥기여서기도 하였다.

하긴 손 창환은 《장관》자리에 올라 앉은 첫날부터 《보건 사회부》 보관의 각종 《미국제》 고'가 약을 대량 횡령하여 수십 억환을 긁어 모았다. 《국회 의원》이란 놈들도 저먹자고 하는 노름이요 《장관》놈들도 한몫 보자는 판에 내가 한몫을 안봐?》 하는 것이 손 창환의 배짱이였다. 그런데 남의 일에 배아파 하는 괴뢰 《국회 의원》이란 놈들이 지금 《국회》의 이름을 빙자하여 《장관》놈들을 모주리 불러 들여 《정부 소관》 부별 질의를 드려대자는 것이 아닌가? 손 창환은 《너희들이 나를? 흥, 빠질 구멍'수가 다 있다.》 하는 심산으로 《장관》 출근은 안하고 한창 돈'벌이 대목장인 요지음 《병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

《흥, 사람은 죽으란 법 없거든! 여름엔 일본 뇌염, 겨울엔 비틀빈 인푸렌자 그리고 지후테리, 등등 흐흐》 하고 손 창환은 어깨에 날개가 돋쳤다. 이번 통에 또 수 억환이 주머니에 굴러 들었다. 수 많은 가난한 환자들은 병원 문에서 내쫓겨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 넘어 간다.

《보건 사회부 장관》인 손 창환 자신이 이런 놀음판이니 리 승만 도당들의 전염병 예방 대책이란 가히 알 노릇이 아닌가? 오히려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바이요, 한편으로 기뻐 날뛰는 판이 아닌가! 《내가 <보건 사회부 장관> 자리에 몇 날이나 앉아 있겠느냐? <장관> 자리를 가로 타고 앉아 있겠느냐? <장관> 자리를 가로 타고 앉아 있는 동안에 한 밑천 단단히 잡는 게 땡이야 땡!》 하는 것이 이를테면 손 창환의 신조라 할까 어떻든 그 결심을 단단히 하고 접어 들었다.

그런데 들려 오는 말에 의하면 《공무원 법 제 36조》 위반 행위로 《국회》가 자기를 호출한다는 소문이 자자하였다.

《공무원 법 제 36조》란 이를테면 리 승만 괴뢰 《정권》에 복무하는》 공무원들은 《공직 외에 겸직 행위를 엄금한다는 그럴듯한 조문이였다. 이 조문이 바로 코에 걸면 코거리요 귀에 걸면 귀거리 식인 놈들의 기만적 조문임을 누가 모를 것인가!

그리하여 손 창환은 《공무원 법 제 36조》에 대하여 기상 천외인 응수 대책을 강구하였다.

드디어 《보건 사회부 장관 나으리님》은 괴뢰 《국회》 단상에 불리워 올라섰다.

싸움판으로 일관한 《국회》에서 제법 《공무원 법 제 36조》를 거들어 가지고 마치 자기들만이 《국민》을 위하는체 하는 《국회 의원》들을 손 창환은 가소롭게 생각하였다.

《보건 사회부 장관》이며 《대한 적십자 총재》인 손 창환은 《덕수 병원》이라는 개인 병원을 경영함으로써 《공무원법 제36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손 장관은 《장관》과 《총재》로서 《덕수 병원》 문을 즉시 닫음이 어떠한가? 그럼으로써 올바른 《보건 사회 행정을 기하라》고 민 광식 《의원》이란 자가 호통을 쳤다.

민 광식과 본래 으르렁대는 사이였든 손 창환은 대뜸 《사창을 경영하고 있는 민 광식 《의원》은 나에게 그런 질의를 들여 댈 수 있느냐?》고 마수거리로 응수를 들여 댄 다음 자기도 놀라리만큼 한 명답을 하였다.

《개인 병원을 가짐으로써 공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없다. 겸직을 금하고 있는 공무원 법 제 36조는 일반 공무원에 적용되는 것이지 고관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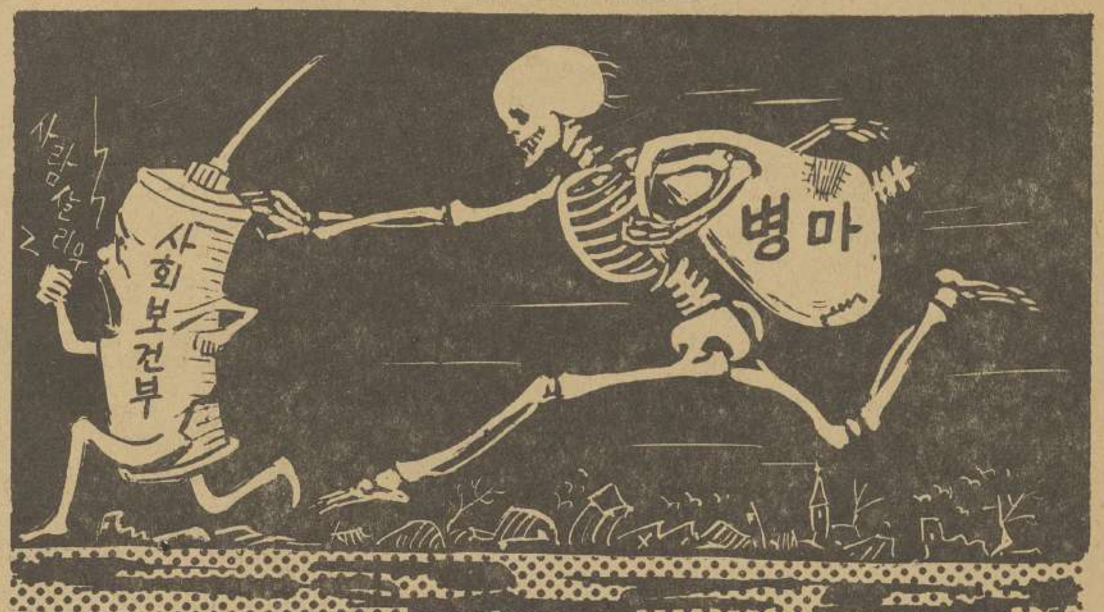
이 명답은 삽시간에 리 승만 괴뢰 정권 내에 전파되였다.

《보건 사회부》 직원들은 명 《장관》이라고 손 창환을 극구 찬양하기 시작했다.

《고관급에 해당 안되는 공무원 법 제 36조는 더구나 우리 박봉 일'군들에게도 해당 안된단 말이거든…하하》 그 이튿날부터 손 창환의 명답으로 《보건 사회부》 창고의 의약품들은 뻐젓하게 도적들을 마치기 시작하였고 《보건 사회부》 소속 공무원들은 저마다 《병원》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장마 뒤 화약처럼 폭발한 일본 뇌염과 각종 전염병 환자에 대해서 한몫 보려고 이렇게 저마다 날뛰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공무원 법 제 36조》는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편리한 《공무원 법》이란 것이 증명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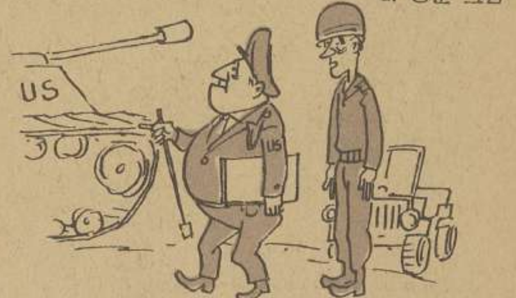
병마가 휩쓰는 남조선



허 능택 그림

훈련 성적 평가

리 영춘 그림



—민가를깔아 눕히고

-녀인을 죽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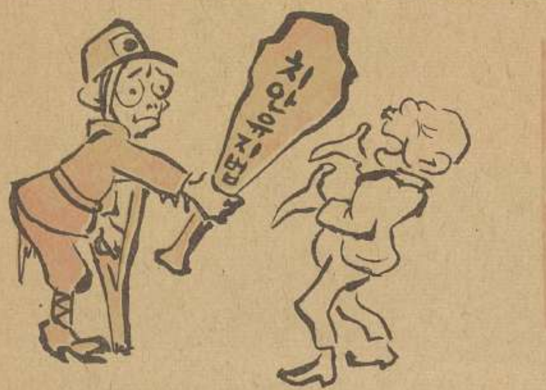
—어린 아이를 죽여도 태연했으니

-당신은 미군의 임무를 충실히 리행했소 승급시켜야겠소

채무에 얽매였다 (현대판 농노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13년 간에 걸친 계통적인 농촌 파괴 정책과 수탈 정책의 결과 남조선 농촌에서 부채 농가 수는 전체 농가의 90%를 점하고 있으며 그들이 걸머지고 있는 부채액은 1천 억환에 달하고 있다.

백 인균 그림



몰려받아…

이름을 고치고

개악했다.

송 용남 그림

오 흥 택

학생모를 쓴 한 청년이 바쁜 걸음으로 종로 뒤'골목을 빠져 나왔다. 학생은 급한 일이 있는듯 고개를 푹 숙인채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골목 길에서 눈을 휘번득거리던 한 중년《신사》가 학생의 뒤'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곧 뒤따르기 시작했다. 얼마간의 사이를 두고 학생과 중년《신사》는 바쁜 걸음을 치고 있다.

《여— 어델 그렇게 급히 가》

맞은 편에서 오던 한 학생이 바쁜 걸음을 치는 학생을 보고 알은체를 했다.

《어, 좀 볼 일이 있어서》

《알지》

《뭘?》

《그거 말이야》

학생은 눈을 끔뻑하였다.

《응 알어, 급한 일이 있어 그러는데 또 만나세》

학생은 또 걸음을 재촉했다.

뒤 따르던 중년《신사》는 잠간 보이지 않더니 또 학생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학생이 판자'집 거리로 들어 설 때 뒤 따르던 중년《신사》가 앞을 가로 막았다.

《종로서에서 왔는데 잠간—》

《무슨 일이요? 나 좀 급한 일이 있어 그러는 데요》

《잔말 말어》

종로 경찰서에 있다는 형사는 벌써 학생의 팔을 잡고 있었다.

× ×

종로 경찰서 취조실

《이놈 바른 대로 말해,허튼 소릴하면 저걸 알지?》

형사는 무수히 벽에 걸려 있는 고문 기구들을 가리키고 있다.

학생은 묵묵히 앉아 있다.

《이놈 어데로 갔지?》

《아저씨 집에 가는 길이였소》

《아저씨는 뭘하는 놈이야》

《일'자리가 없소》

《뭣 땜에 급하게 찾아 다녀》

《어머니 병이 위급해서》

《닥쳐, 바른 대루 말해》

형사는 눈을 부라리고 가죽채를 들었다.

《내가 뭘 잘못했소, 어머니 병이 위급한데 빨리 가 봐야겠소》

가죽채가 윙하고 울더니 학생은 코피를 쏟으며 앞으로 꼬꾸라졌다.

《네놈이 바쁜 걸음을 친 것은 수상해》

《걸음을 빨리 걸어도 죄가요?》

또 가죽채가 윙하고 울었다.

《너 같은 실업자 패거리들은 사상이 불온한거야, 바른 대루 말해》

형사는《징병 기피자》검거 책임량을 아직 해 내지 못한 데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 ×

취조는 사흘째 계속되였다. 학생도 오늘은 독이 올랐다.

《임마 오늘은 바른 대루 말할테지?》

《어머니의 병 땜에 바쁜 걸음을 친 것 밖에 내게는 죄가 없다》

가죽채가 또 학생의 등허리를 휘감았다.

《임마, 학생 보구 알지 한 것은 뭐야》

《징병 기피 가두 검색이 있는 걸 안다구 한거다》

《알긴 아는군, 임마 여게 도장을 찍어》

《거 뭐냐 백지에다 도장을 받아 뭘 해?》

《다시는 붉은 사상을 안 가지겠다는 걸 맹세하는거다. 자, 찍으라》

형사는 제법 인주까지 내놓고 지장을 찍으라고 강박했다.

《걸음을 빨리 걸어도 사상이 불온한 거요?》

《무슨 잔말이냐, 썩 못 찍겠어?》

형사는 위협적으로 가죽채를 들었다.

《백지에다 도장 받는 법이 어데 있어》

《흥, 법이 뭐야, 아직도 속이 살았구나,맛을 봐라》

윙하고 가죽채가 울고 다음에는 비행기 고문이 시작되었다.

청년이 의식을 잃었을 때 형사는 백지에다 지장을 눌렀다.

× ×

이틀 후에 청년은 《징병 기피자》라는 딱지가 붙어 괴뢰군에 징집되였다. 위급한 병중에 있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 오기를 기다리다 못해 눈도 채 감지 못하고 원한 많은 세상을 떠났다.

괴뢰군에 넘어 갈 때 청년이 항거했으나 경찰은 그의 코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탄백서를 내 밀었다.

《징집을 기피한 것은 국민의 의무를 망각한 것으로 심심히 사죄하오며 이에 국군에 입대할 것을 자원함》

로 철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다하여 상품을 팔라고 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호소에 따라 지금《반(反) 경제 쇠퇴 운동》이 한창 고조 중인 우리 미국에서는 더욱이 오는 10월에 있을 국회 선거를 앞에 두고 세인을 놀라게 하는 각종 모범적인 상업 광고술이 속출되고 있다.》

—8월 6일부《뉴욕. 월드. 텔레그람. 앤드싼》지에서

뉴욕—상점마다 판로를 잃은 상품들이 먼지에 가득 쌓이고 실업자들은 떼를 지어 거리를 헤매고 있는 현대 황마의 도시

그 한복판에 파크 스트리트라는 거리가 있다. 이는 한다 하는 미국에서도 우두머리 가는 카페, 캬바레, 쟈즈홀, 매음굴의 거리이다. 온 도시, 온 미국이 끄칠 줄 모르는 경제 위기에 허덕이고 있으나 이 거리만은 이름난 고관 대작들, 부귀 영화에 진탕 소일할 곳만 찾아 다니는 유한 마담들, 어제'밤의《실무 사업 결과를 총화》하는 깽패들,그의 뒤'꼬리를 쫓아 다니는 신문 기자들, 온갖 오가 잡탕들로써 항상 흥성거리고 있다.

이 거리에서도 가장 화려한 곳은 "엠피아 커피"라는 차'집이다. 이것은 기실 캬바레 겸 대 도박장인데 주로 백악관과 5각 빌딩 (국방성)을 손님으로 하고 있다.

얼마 전에 여기에서는 미 국방 장관 맥클로이가 베푼 기상 천외의 대 연회가 있었다.

연회는《100% 미국식 생활 양식》에 따라 조직되였다. 즉 이 연회에 초빙된 것은 보통 손님이 아니라 거개가 다 개, 고양이, 말, 원숭이와 같은 뛰는 짐승, 기는 짐승, 나는 짐승들이였다. 심지어는 구렁이까지 국방 장관댁의 간절한 초대를 받았다.

이날 "엠피아 커피"의 대문 앞에 줄 지어 늘어 선 국방성 친위대원들의 은근한 절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손님》은 원숭이《공고》였다. 《공고》는 미국의 조형 예술계를 초풍케 한 초 현실주의파《대 화가》이다. 그의《그림》은 이미 뉴욕, 워싱톤, 시카고는 물론이고,멀리 런던, 파리에도 전시되여 진짜 사람이 그린 인상파 그림보다 몇 갑절이나 비싸게 팔린바 있다. 이 서방 세계의《대 천재》는 오늘 후록코드에 금시계를 차고 개화장까지 휘두르면서 응접실 쏘파 우에 깡충 뛰여 올라 앉는다.

다음에는 어떤 항공기 사단의 장군 나으리가 기른다는 말 새끼가 꼬리를 흔들면서 나타났고 연이어 앵무새가 날아 들어 왔는데 이 앵무새로 말한다면 이미 루차에 걸쳐서《음악회》에 출연한 바도 있거니와 얼마 전에는《왜 미국 군대가 레바논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텔레비죤에까지 출연하여《간접적 침략을 막기 위하여》라고 한마디 한 탓으로 덜레스의 극진한 칭찬을 받은 다음부터는 급작스럽게 이름이 더 높아진《명성》이다.

시간이 가까와 옴에 따라《손님》들의 발도 더욱 잦아졌다.

갑자기《쉬—》하는 소리와 함께 친위대원들의 고개는 더욱 수그러졌고 바르르 하고 맥클로이의 부인도 문전까지 마중 나왔다.《석유 대왕》록펠러 2세의 고양이 "샤그냐"가 화려한 고급 승용차에 타고 나타난 것이다. 들은 바에 의하면 "샤그냐"에게는 전용차 뿐만 아니라 호화로운 별장에 고무 뽀드도 가지고 있고 300딸라나 한다는 수달피 외투요,비로드로 만든 스코드랜드 모자요, 나이론 샤쯔에 운동복, 무도복, 우비는 물론 입안에는 금'이가 한입이요, 네 발에는 보석 반지까지 끼고 있다 한다. 며칠 전에 신문들은 록펠러 2세 부인이 "샤그냐"를 위하여 또 다시 2천 딸라의 대금을 써서 "류드비크" 15세식 침대를 구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손님》들의 입장은 "전국 애견가 협회"가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있는《수상 경기 대회》《미견 대회》등에서 1등 상을 받은 각종 각색의 이름난 개들의《왕림》으로써 끝이 났다.

자리에 착석한《손님》들 옆에서는 시종'군들이 한 명씩 서서 대접을 하는 데 이윽고 주최자 측을 대표하여 국방 장관 비서가 개회사를 하였다.

《에, 숙녀 신사 제씨들! 나는 지금 위대한 사명을 지니고 중근동 지방에 출장 중이신 존경하는 국방 장관 각하의 위임에 의하여, 그리고 가장 선량하고 가장 상업 의욕이 왕성한 미국 애국자들을 대표하여 본 연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장관의 비서가《미국 애국자들》의《가장 선량하고 가장 상업 의욕이 왕성》한 심정을 네 발 가진 짐승, 두 발 가진 짐승들에게 삼가 드리기 벌써 전에 이미 연회는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첫술부터가 일대 쟁탈전이였다.

그 중에서도 개들이 고기'덩어리와 소뼈 쟁탈전이 가장 격렬하였고 고양이 새끼들이 무슨 2세요, 어느 명문의 출신이요. 도무지 체면을 가리지 않고 이 구석 저 식탁 밑으로 몽켜 다니면서 물'고기 빼앗아 내기에 백열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갔다.

"공고"로 말하자면 이《대 화가》는 위스키를 한 잔 들여켰는지 혹은 제 본 세상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뻤던지 식당 안의 흰 벽이란 벽은 모두 돌아 다니면서 또 하나의《대 걸작》을 그리고 있었고, 항공기 사단의 그 말 새끼는 하늘로 뛰여 올라 가고 싶었던지 춤을 추고 싶었던지 한참 이리 깡충 저리 깡충하다가 내중에는 술독에다 긴 머리를 쳐 박고 너부러지고 말았다.

그래도 앵무새만은 아마 좀 제 정신이 남았던 모양이다. 식탁 우에 날아 올라서 닭고기를 쫒고 있던 이《명성》은 비서 나으리의《상업 의욕이 왕성한…》이라는 연설 한 구절이 귀에 들리자 미리 짜 둔 계획에 따라 몇 마디 목메인 소리를 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에헴! 가장 선량하고 가장 상업 의욕이 왕성한…》하고 비서가 되뇌이자 그 때에야 앵무새는 다닥다닥 닭고기가 붙은 뿌리를 발로 한 번 부비고 나서 쇠된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맥클로이. 히미컬 캄파니의 비누를 사시오!》

"맥클로이의 비누를 사시오"—알고 보니 바로 이것이 이 해괴 망측한 대 연회가 노리자는 목적이였는데, 다 아는 바와 같이 맥클로이는 미 국방 장관일 뿐만 아니라 대 비누 회사의 지배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다.

다음날 뉴욕의 여러 신문들은 대서 특필로 이 대 연회를 상세히 보도하였다.

그러나 신문들은 그날《엠피아. 커피》뒤'문에서 금수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나 혹은 하루'저녁의 그릇 닦는 일이라도 얻어 볼가 하여 수 많은 실업자들과 그 가족들이 줄을 지어 오래 오래 한숨을 쉬고 있었다는 데 대하여서는 일언 반구도 보도하지 않았다.

권세를 가진 녀성과 륜락의 녀성

서울 8월 19일 발 로이터 통신은 남조선의 녀성들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일부 녀성들은 소위 <왕관 뒤의 권력자>로서 행세하고 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유명한 녀성들로서는 당년 58세의 리 승만 부인 에리쓰와 당년 55세의 국회의장 리 기붕의 안해 박 마리야다. 일부 녀성들은 또한 금융 면에서도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 개인 기업가들이 은행에서 대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들은 녀성 고리 대금업자를 찾아 간다.

관영 은행에서는 년 8%의 리률로 대부하는 반면에 이들 개인 고리대금업자들은 월리로서 10% 이상의 리자를 받고 있다.

정부 고위 관리들의 부인들은 개인 고리대금업의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그들은 가정의 돈 주머니를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수입 수출의 실질적인 부분을 지배함으로써 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영국 통신은 남조선의 근로 녀성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용이주도하게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숨길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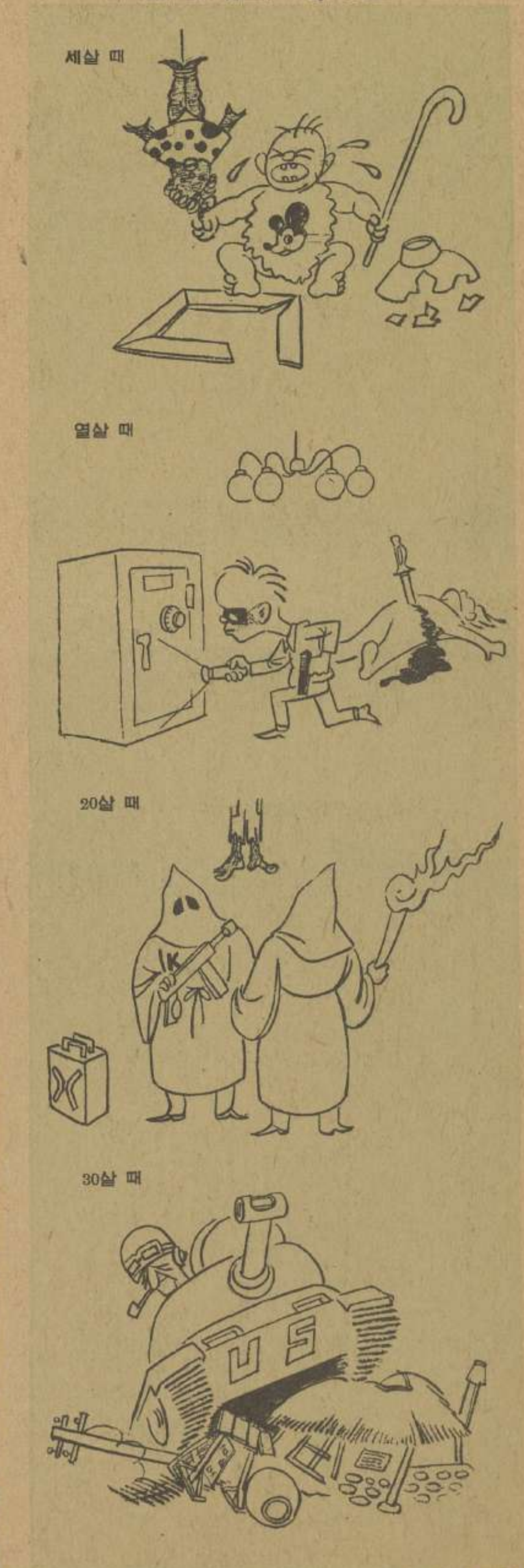
<1948년부터 매음 금지법을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서울에만도 수 많은 매춘부가 있다>

매음 금지란 명목 뿐이고, 리 승만 도당의 매국 매족적 정책은 륜락의 거리로 떨어지는 녀성들의 수효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그 실례로는 길하나를 격하고 동대문 경찰서가 있는 바로 맞은 편에까지 사창들이 공공연히 있는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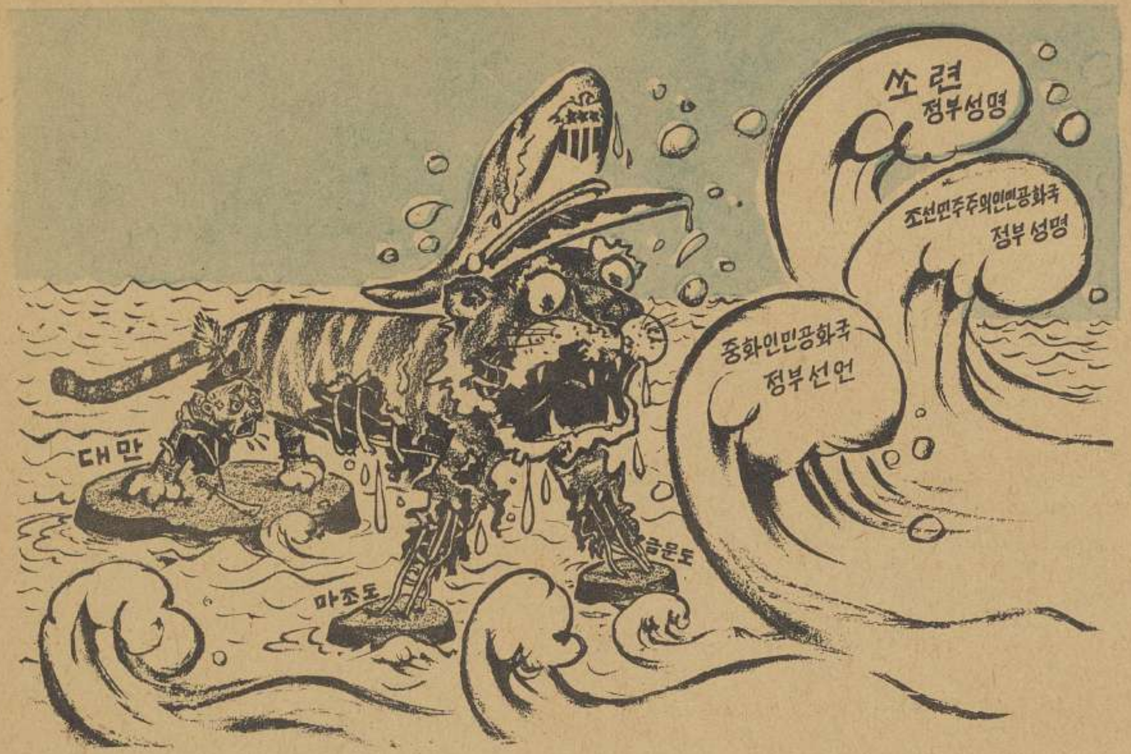
이것으로 남조선의 가난한 녀성들의 처지의 일단은 알 수 있을 것이다.

파괴자의 자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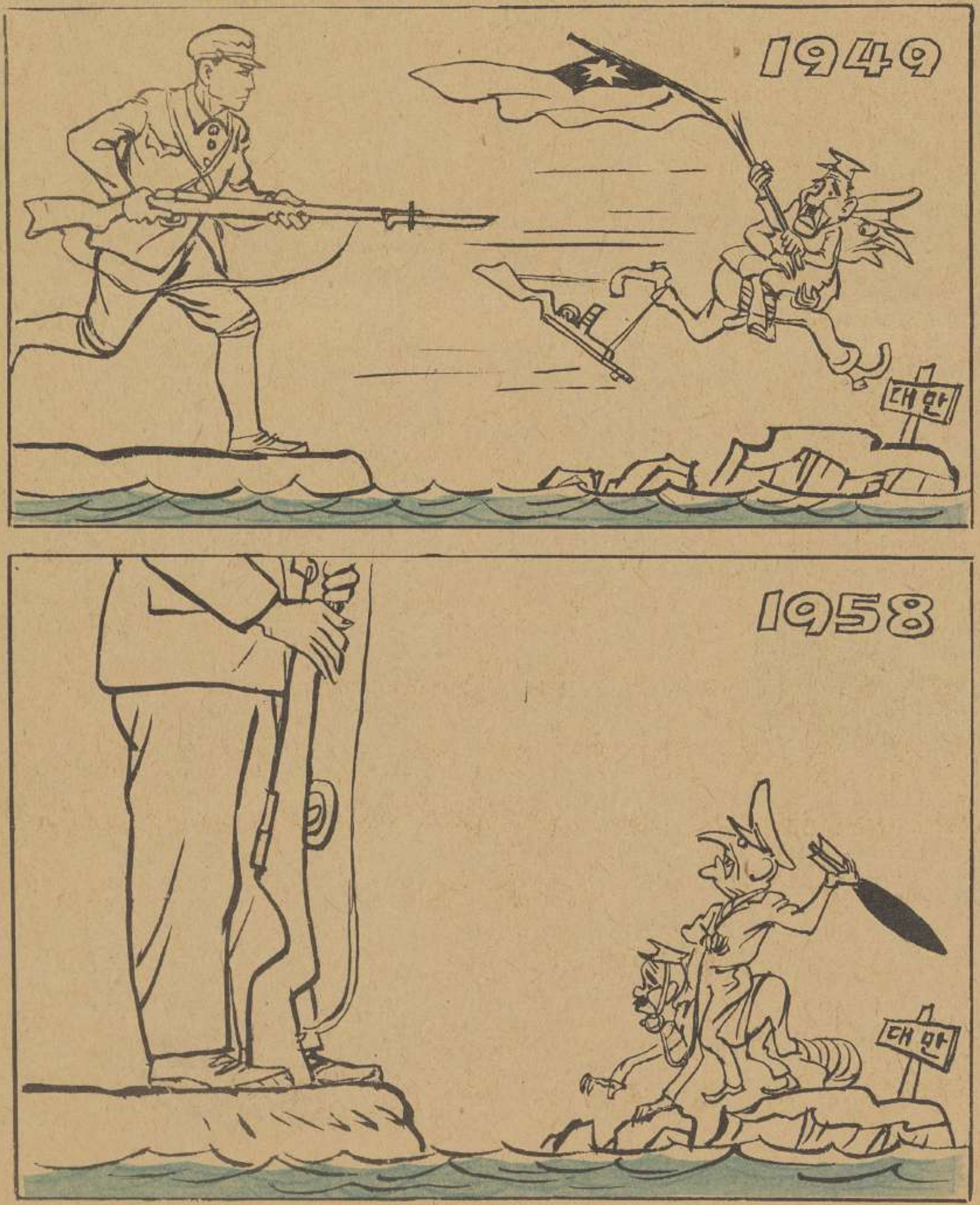
최 영근 그림

또다시 드러난 《종이 범》의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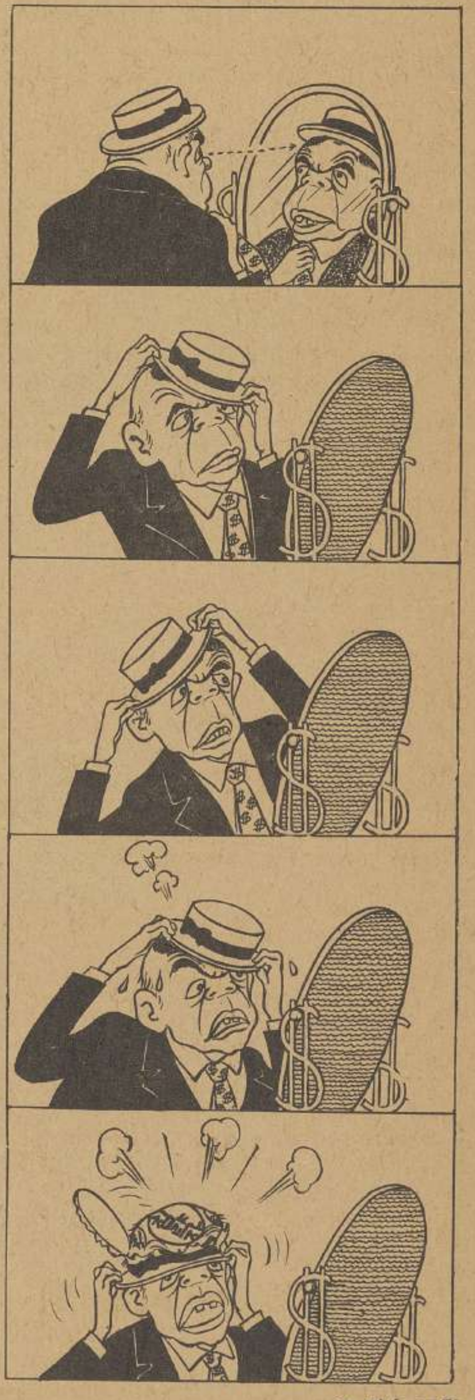
백 인균 그림

1949년보다 비할 바 없이 장성한 력량 앞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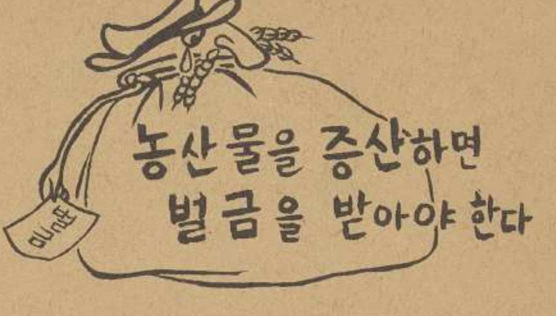


박 승히 그림

감출 수 없는 락인



원 광수 그림



농산물을 증산하면 벌금을 받아야 한다

최 경 희

소개자: 여러분! 지금부터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농산물을 증산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니 뭐? 《농산물을 증산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니? 아마 이렇게 여러 분은 깜짝 놀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몹시 괴상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이러한 일들이 저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일상 다반사로 되고 있답니다.

(막이 열린다)

자, 저 미국 농민을 보십시오. 저 피골이 상접한 농민은 일년 지은 곡식을 방금 시장에 가져다 팔고 돌아 오는 길입니다.

(소개자 퇴장하고 미국 농민 갑 무대 우에 나타나 걸상에 걸쳐 앉아서 돈을 세기 시작한다)

갑: (긴 한숨을 지으면서) 아아— 피땀 흘려 번 돈이 요것 밖에 안되니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살아 간담?

(이때 노크하지도 않고 미국 세무관 을이 나타난다)

갑: (가슴으로 돈을 가리며) 그 누구요?

을: (무뚝뚝하게 책상에 마주 앉으면서) 세무서에서 나왔소.

갑: 농업세 땜에 말입니까?

을: 옳소, 추수는 다 끝났으니 속히 셈을 치러야지 (두툼한 장부를 펼친다)

갑: (점점 불안해 하면서) 저 나으리 전 암만해두 모를 게 하나 있는데요.

을: (역시 무뚝뚝하게) 말해 보우

갑: 저 수확은 작년보다 더 많았는데 손에 쥔 돈은 더 적어졌으니 이게 대체 웬 일일까요. 모두 502 딸라 850센트 밖에 못 받았습니다요—.

을: 그게 뭐 이상할 게 하나나 있소 응? 경제 위기란 말요, 알겠소? 상품들이 팔리지 않고 있단 말요.

갑: 그러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번영하는 미국》이라구 하지 않았수?

을: 그 《번영하는 미국》이 요즘 요꼴로 된 것두 따지구 보면 당신들 같은 비애국자들이 그저 죽자하구 곡식만 많이 생산한 탓이요.

갑: (벙어리 꿀 먹은 얼굴을 하면서 아니 그럼 우리 농민들이 한 알이라두 더 거둬 들이겠다구 땀 흘리는게 그 무슨 《반역죄》로 된단 말이유?

을: 암 두말할 필요 있소? 자본가들은 《잉여 농산물》을 바다 속에 집어 넣다 못해 이젠 아예 당신같은 미욱한 량반들까지 처 넣어야겠다구 하고 있소. (고지서를 떼여 주면서) 골치 아픈 경제학을 이제 그만 풀구, 엿소, 고지서나 받구 빨리 농업세나 내오.

갑: (읽는다, 아연 실색한다) 뭐요? 농업세가 484 딸라라구요? 아니 작년에는 320 딸라였는데요?

을: (태연 자약하게) 옳소, 나는 당신의 수학적 재능을 높이 평가하오.

갑: 그런데 금년에는 왜?

을: 농업세가 20% 올랐소. 미국은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하여 중근동에 출병하고 있소. 대통령 각하께서는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미국 납세자들이 우유를 좀 적게 마시라구 하셨소, 알겠소?

갑: 아니, 그래 20%가 올랐다 쳐두 384 딸라만 물면 되지 않수?

을 (의연 태연 자약하게) 역시 옳소, 높이 평가하오.

갑: 그런데 484 딸라란—?

을: 웬 말씀이냐 말이지? 새 법령이 나왔소.

갑: —?

을: 당신 금년엔 작년보다 500 키로 더 수확했지?

갑: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요?

갑: 아따 이 말버릇 좀 봐라, 미국의 현 농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위대한 법령이 나왔단 말요, 이제 읽어 줄게 잘 듣소 《대통령 비준》 미국 농업 개건안》이라. 옳지 여기에 있소. 《제 3조 증산한 개인 농민으로부터는 매 키로그람마다 20 센트씩 벌금을 징수할 것》

갑: 벌—금—?

을: 옳소, 벌금이요, 그러니 이오는 십하고 100 딸라를 더 가하면 모두 484 딸라, 나는 절대 공명 정대하구 공평하오.

갑: (제 정신이 든듯) 아니요, 이건 절대 불공평하오, 18 딸라 밖에 안 남는 걸 가지고 어떻게 1년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요?

을: 그건 내 알배가 아니요. 나는 충실하게 직무를 리행하고 있을 따름이요, (책상 우에서 484 딸라를 세여 호주머니에 넣는다) 한푼의 탐오도 없소, 잘 있소, 난 가겠소.

갑: (격노하여 일어선다) 못간다 이 날강도놈아!

을: 뭐 어째? 날 강도라구?

갑: 그래 대낮에 생 사람 목숨을 따가는 이 천하에 흉악한 날강도 놈아!

을: (랭소를 지으며) 흥, 좋소, 매우매우 좋소, (염낭에서 무슨 서류를 꺼내며 적어 넣는다.) 여보, 래일 아침 11시까지 20 딸라의 수속료를 지참하고 반미행동 조사 위원회에 출두하시오.

갑: 뭐—요?

을: 공공연하게 정부를 비방하였으니 우리는 당신의 사상을 한번 좀 단단히 조사해 보아야겠소. 공산주의 사상에 얼마나 물들어 있는가 하구, 알겠소?

갑: (두 손으로 머리를 싸매고 절망적으로) 아—아—

(막을 닫으면서 소개자 다시 나타난다.)

소개자: 이뿐인줄 아십니까? 미국의 어떤 지방에서는 그전 해보다 곡식을 덜낸 농민에게 《상금》까지 주고 있답니다. 오늘 미국의 거리에는 1천 3백 만명 이상의 실업자 반실업자들이 굶주린 창자를 움켜 쥐고 쓰레기 통을 뒤지고 있는 이때, 이 얼마나 범죄적인 일입니까!

한 곡조 끝났습니다

송 용남 그림

낡은 악부에 새로운 악기

백 인균 그림

력사의 오물통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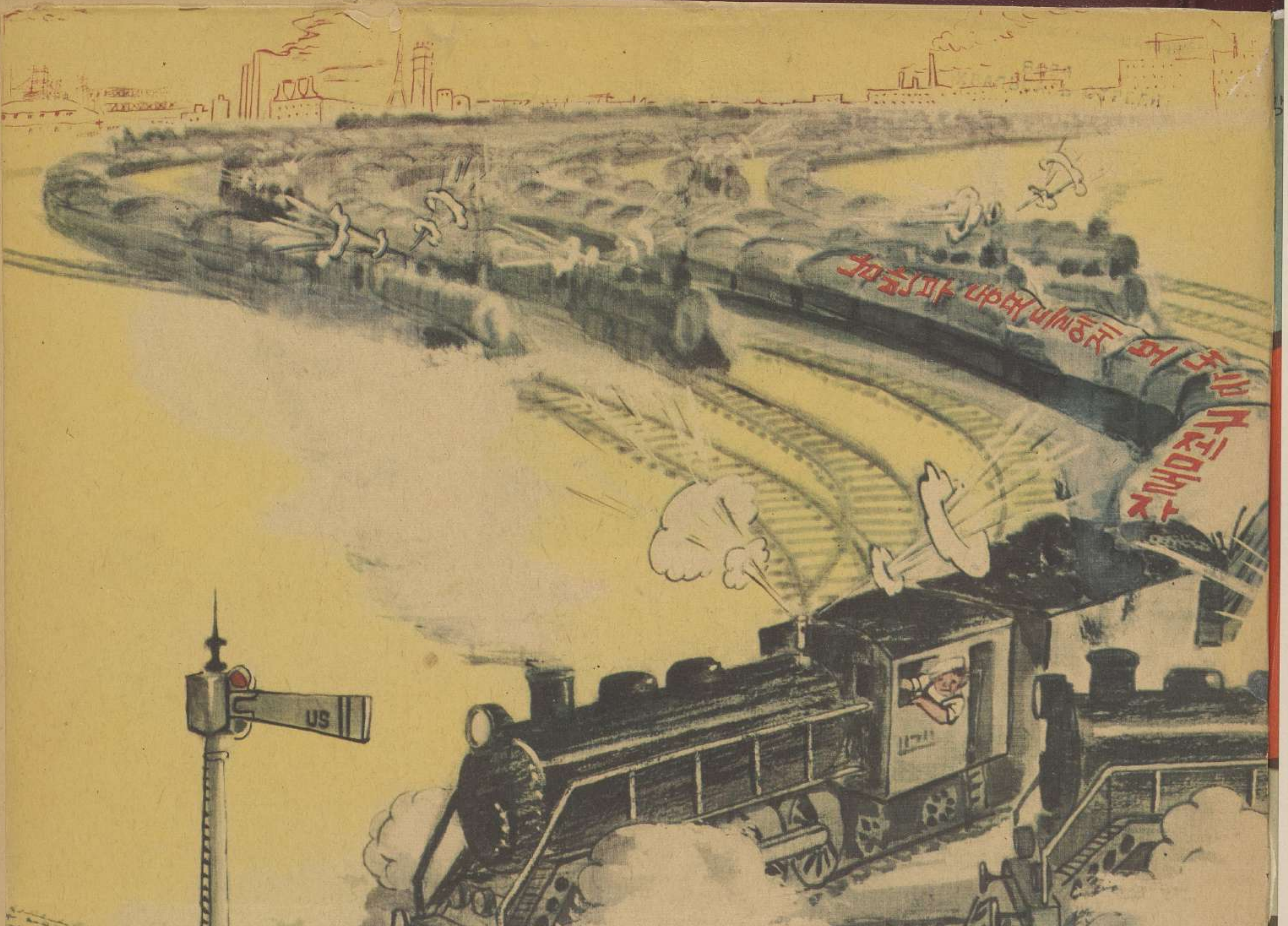
백 인균 그림

퀴퀴 묵은 노래

허 능택 그림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활 살 사 인쇄 1958. 10. 10 ㄱ—22689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8. 10. 15 값 (50원)



길이 열리기를 재촉한다

조 명식 그